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에는 선인, 죄인, 남녀 노약인, 애인 등 각 사람들이 있어 그 특색으로 살아가며 땅에 출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 남자와 여자가 부부되어 성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명하셨지만 오늘날 동성애를 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거스려서 사람들이 제 갈 길을 잃어버리고 암흑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아야 하며 열매로 달리는 영생의 기도를 되풀이하며 사랑을 다하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1-12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10월 18일 (토) 제 1505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미전역 절반 이상 동성결혼 사실상 합법화!

WSJ, 6일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허용판결에 따른 파장 보도

미 연방 대법원이 6일, 국토 절반 이상에서 동성 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했다. 5개주(인디애나, 오클라호마, 유타, 버지니아, 위스콘신) 항소법원은 동성결혼 금지에 위헌이므로 이를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상기 5개주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에 대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심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유타, 버지니아, 위스콘신 주에서도 동성 결혼이 허용될 전망이다. 종전에

는 19개주와 콜롬비아특별구(워싱턴DC)에서만 동성결혼이 합법이었다.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6개주(콜로라도, 캔자스, 와이오밍, 웨스트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Supreme Court Allows Gay Marriage to Begin in 5 States: Justices Decline for Now to Make Nationwide Decision on Issue).

찬성표 4표만 있으면 심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6일 발표된 결정에서는 어떤 대법관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중도 보수 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과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진보 성향의 대법관 4명은 여론보다 너무 앞서 가는 것을 지양하고자 최종 결론은 유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론은 동성애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미 흘러가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법학과 커밋 루스벨트 교수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볼 때 동성결혼 이슈가 거의 결정 직전까지 왔음을 알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상고를 심리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을 리가 없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다.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캘리포니아 주헌법(안 8호(프로포지션 8))를 지지하는 진영을 대변했던 찰스 쿠퍼 변호사는 “연방 대법원이 헌법 재판을 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것과 닮았다”고 말했다.

한편 동성애자 권익 단체들은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대표적 동성애 인권 단체인 ‘프리덤 투 매리(Freedom to Marry)’를 창설한 예반 울프슨 대표는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인 60%가 동성결혼이 합법일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거주하게 됐으며 이렇게 주장했다.

(3면으로 계속)

“국민 뜻 무시한 최고사법기관의 독단적 횡포” 보수진영 거센 비판 불꽃

연방 대법원의 이 같은 갑작스러운 발표는, 연방 대법관들이 동성결혼의 결혼권을 미국 전역에서 합법화할 것인가 여부를 시들려 결정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연방 대법원은 관례대로 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연방 대법관들은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라는 항소법원의 판결을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았다. 버지니아 주 소송에서 동성결혼 찬성 진영의 변호를 맡았던 시어도어 울스 변호사는 연방 대법원은 “때로 무대응으로 대응한다(sometimes they act by inaction)”고 표현했다.

5개주(인디애나, 오클라호마, 유타, 버지니아, 위스콘신)는 대법원의 결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대법원 발표가 나온 지 몇 시간 안 돼서 5개주에서는 동성 결혼 허가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오클라호마 주의 메리 폴린 주지사(공화당)는 “국민이 선호하지 않은 연방 대법관이 국민들의 뜻을 무시했다”고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201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라는 역사적인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허용을 원하는 5개주 항소법원의 상고를 심리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보수진영이 거세게 반발했다.

판결을 내린 이후 동성결혼 금지판결을 인정한 항소 법원은 한군데도 없었다.

유타 주의 게리 허버트 주지사(공화당)는 “결혼법은 각 주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는 법을 존중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므로 법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테리 매컬리프 버지니아 주

주지사는 “버지니아 주는 이번 역사적 결정을 시행할 만반의 준비를 이미 끝냈다”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 모두를 놀라게 했다. 양측 모두 대법원이 중재에 나서달라고 촉구해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6월부터 새로운 회기를 시작한 연방 대법원에 동성결혼 이슈는 핵심 판결이 될 것으로 전망해왔다.



2면

재능만으로 부족, 인격으로 덮어야 한다!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 원장)



16면

신앙의 본질회복을 통한... 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16면

본사방문 “성막영성” 저자 송태규 목사

(3면으로 계속)

취미가 독서라면 ‘슬로 리딩’을 권한다!

WSJ, 인터넷 ‘인스턴트’ 정보획득 아닌 속도 회귀현상 보도

우리는 날마다 대량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현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책도 ‘되도록이면 빨리 많이 읽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말하자면 ‘속독 콤플렉스’다. 독서를 즐기는 비결은 무엇보다도 ‘속독 콤플렉스’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책을 빨리 읽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책을 빨리 읽으려다보면 자연히 빨리 읽을 수 있는 알맞은 내용의 책으로 손이 가기 마련이다. 반대로 천천히 읽으려 한다면 시간을 들여 읽을 만한 내용이 있는 책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물론 무턱대고 천천히 읽으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 말했듯 여는 일과 마찬가지로 독서에도 역시 비결이 있다. 결코 어렵지만은 않은 그 비결을 터득한다면, 독서는 그것을 모르고 닦치는 대로 문자를 쫓을 때보다 더 즐겁고 의미 있는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인격적으로도 성장시켜줄 것이다.

단 한번 클릭으로 정보의 홍수로 빠져드는 세상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는 책을 천천히 즐기면서 읽는 ‘슬로 리딩’의 세계로 안내한다(Read Slowly to Benefit Your Brain and Cut Stress: At Least 30 Minutes of Uninterrupted Reading With a Book or E-Book Helps).

멀티미디어 화면은 심층 독서 방해, 건너뛰기 읽기로 바꿔낸 편안한 의자에 앉아 30-45분 이상 읽는데 인쇄된 책이 최상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의 한 북클럽 회원들은 일주일에 한번 카페에서 만난다. 각자 마실 것을 주문하고 휴대폰은 전부 끈 다음 편안한 의자에 몸을 맡긴 채 한시간 동안 조용히 책을 읽는다.

모임의 취지는 작문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잠시라도 전자기기에서 벗어나 방해 없이 책을 읽자는 것이다.

모임 이름은 ‘슬로 리딩 클럽’(Slow Reading Club), 옛 독서방식을 그리워하는 책 애호가들의 ‘슬로 리딩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슬로 리딩 옹호자들은 구글과 스마트폰,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인간의 시간과 집중력이 흩어지기 이전 독서 방식인 정독 혹은 속독(focused reading)으로 회귀하길 원한다. 더 이상 한자리에서 책 한권을 다 읽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슬로 리딩 컨셉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슬로 리딩 클럽을 시작한 예술계 마케팅 매니저 맥 윌리엄스(31)도 “예전처럼 책읽기에 심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너무 서글펐다”고 말한다.

옹호자들에 따르면 슬로 리딩이 주는 혜택은 많다.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사고력과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슬로 리딩 운동뿐만 아니라 요즘엔 ‘슬로 푸드’나 ‘손으로 하는 뜨개질’ 등 시간을 들여 천천히 하는 옛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

유아기부터 성인기 후반까지 독서가 주는 혜택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됐다. 지난해 ‘신경학’ 저널에 실린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독서처럼 뇌를 움직이게 만드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노년기 기억력 감퇴를 둔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3면으로 계속)

풀러신학대학원 한인 목회학 박사과정



우리는 안타깝게도 “자정 능력을 잃은 한국교회”라는 표현을 익숙하게 들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바른 한국교회를 위한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대안들이 가능할까요? 많은 이론과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결국 목회자가 철저히 낮아지며 변화되지 않고는 진정한 한국교회의 변화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풀러 한인 목회학 박사과정은 그런 고민을 담아, 1995년부터 목회자들을 위한 재교육의 현황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학위를 위한 자리가 아닌, 현장목회 가운데 바른 신학적 분별력, 섬김의 리더십, 목회적 역량을 균형 있게 겸비한 목회자로 재무장하며 재현신 할 수 있도록 돕는 한인 목회학 박사과정은 1)성경연구와 설교, 2)목회상담과 돌봄, 3)신학과 목회와 문화, 이 세 집중분야에서 권위있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코스워크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신학이 만나는 이러한 귀한 학습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인목회학박사과정의 학습목표
· 목회사역을 위한 성경/신학적 기틀 재확립과 소명의 재확인
·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기독교 가치/원리에 부합한 대안모색
· 목회상황 분석능력배양과 다양한 사역에서의 목회기술개발
· 가정/교회/사회에서의 건강한 대인관계 개발
·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효과적인 리더십 및 영성/도덕성 함양

학위과정 개요
3개의 집중분야를 중심으로
· 코스 : 40학점 · 논문 : 8학점
· Tuition : 학점당 \$400
· 재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 지급
·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여행보조금 지급

가을학기 신학과 목회 강좌(공개세미나)

시편의 해석과 설교
- 강사: 존 골딩게이 교수(풀러 구약학)
- 일시: 10월 27일(월) 10am-12pm
- 장소: Payton 102호 강의실

가을학기 정규세미나(입학 후 수강가능)

- NT746: 목회자를 위한 신약성경신학 II (하나의 복음을 다양하게 선포하기)
- 강사: 김세운 교수(풀러 신약학)
- 일시: 12월 1일(월)~5일(금) 8am-5pm



시론

“말”은 “생명”입니다.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프랑스의 휴양도시 니스의 한 카페에는 이런 가격표가 붙어있다고 합니다. △Coffee! 7 Euro △Coffee Please! 4.25 Euro △Hello Coffee Please! 1.4 Euro. 우리말로 바꾸면 스커피-라고 반말하는 손님은 '1불'을 스커피주세요-라고 주문하는 손님은 '60센트'를 스커피주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예의 바르고 상냥하게 주문하는 손님은 단 '20센트'만을 지불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발한 가격표를 만든 카페 주인은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그 카페에서는 말 한 마디를 예쁘게 하는 것으로 똑같은 커피를 1불의 5분의 1가적인 20센트로 마실 수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예쁜 말, 고운 말, 아름다운 말, 칭찬과 격려와 긍정적인 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 담긴 말, 감사와 기쁨과 행복한 말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말을 따라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마음 편히 부담이 없는 부부간에, 자녀들에게,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에게 혹 나이나 학력, 경력, 지위 등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약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지체일수록 그리고 막 대하기 쉬운 상대일수록 더욱더 그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좌절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우리들을 통하여 희미해져 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들을 타고 흘러가 만나지는 사람들을 살려 더욱더 빛을 발해야 합니다. “말”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말이 오고 갈 때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엇이든 막히면 좋지 않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교통이 막히면 정체가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막히면 온갖 오해와 불신이 생깁니다. ‘붕어빵 3개에 1000원, 1개에 200원’. 붕어빵 가게에 붙여놓은 가격표입니다. “이상하네... 많이 사면 더 비싸다니.” 그러던 중 붕어빵을 사러 온 남루한 행색의 할머니와 아저씨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붕어빵 한 개만 부탁해요.” “네, 여기요.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가끔 찾아와 붕어빵 한 개를 사가시는 할머니. 한 개 밖에 살돈이 없는 할머니를 위한 아저씨의 배려였고 그 할머니로 인해 붕어빵 아저씨는 척박한 인생 안에 새로운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되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열려 그 열린 마음의 길로 이해와 배려와 용서, 관용과 자비 그리고 긍휼과 사랑의 말이 오고 갈 때, 거기에는 서로를 살리는 상생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중간에 딱 막히면 아무리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허공을 맴도는 허무하고 소모적인 시간이 될 뿐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막힌 곳이 뚫어져 왔다갔다 소통해야 합니다. 그렇게 열린 길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오고갈 때, 예배와 말씀이 나를 살리고 기도도 응답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통 교제함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야 이것이 나의 찬송아라.” 고백하며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양하리로다.” 영광 돌리는 생활 신앙, 살아 꿈틀거리는 믿음을 사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자들에게도 같은 생명의 체험을 나누고자 전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생산적인 신앙입니다. 말은 “생명”입니다.

엄마가 장난꾸러기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이리저리 천방지축으로 뛰놀던 아들이 갑자기 얼굴이 울그락거리며 뛰어와서 엄마에게 하는 말이 “엄마! 산이 나를 싫어한대”라고 이릅니다. 엄마는 조용히 아이 손을 붙들고 아이가 그 소리를 들은 곳으로 데려가서 “애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외쳐보렴.” 아이가 힘껏 외치자 조금 후에 “사랑해, 사랑해”라는 소리가 그 아이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엄마는 “산은 번덕쟁이인가봐, 나를 싫어했다가, 사랑한다고 하고” 말하는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아들아, 내가 산을 사랑하면 산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산을 싫어하면 산도 너를 싫어한다”고 들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받기만을 바라는 이기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돌아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 먼저 내가 하는 것이 신앙의 지혜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눅6:31)

“말”은 “생명”입니다. 점점 각박한 세태 속에서 “내가 하는” 믿음의 말, 은혜의 말, 희망의 말, 칭찬과 배려와 용서와 이해의 말 등등을 통하여 “내가 있는 곳”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그 어디든 “내가 있기에, 나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있는 시간과 공간으로 변화되고 생명의 역사가 창조되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꿈을 이 가을에 소망해봅니다.

재능만으로 부족, 인격으로 덮어야 한다!

리더십 저널, 존 맥스웰의 재능과 인격의 상관관계 소개

재능이 있으면 금세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만, 훌륭한 인격을 기르지 않으면 초반의 우위는 오래 가지 않는다. 훌륭한 인격이 없으면 재능은 결국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다. 바로 사람은 자기 인격의 한계 이상으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가끔 지름길로 가고 싶은 유혹에 시달린다. 그때, 인격이 그 유혹을 뿌리치게 해주고, 온전한 길로 걷게 해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재능을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어 준다.

때문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가끔 지름길로 가고 싶은 유혹에 시달린다. 그때, 인격이 그 유혹을 뿌리치게 해주고, 온전한 길로 걷게 해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재능을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어 준다.

떻게 대답했다. “깨끗한 양심만큼 부드러운 베품은 없다.” 인격은 재능을 보호해줄 뿐 아니라 후회할 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따라서 재능에 인격을 더해야만 재능이 온전하게 발현되어진다. 그리고 재능은 선물이기에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인격은 선택사항이다. 결국 바른 인격을 원한다면 열심히 개발해야 한다.

1) 역경 앞에서 무릎을 꿇지 말라.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다. “편안하고 고요한 환경에서는 인격을 기를 수 없다. 오직 시련과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만 영혼이 강해지고 비전이 분명해지며 야망이 솟아나고 성공할 수 있다.” 인격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선물인 재능에 인격 더하면 온전해지나 없으면 무너져 인격은 선택사항, 바른 인격 원하면 열심히 개발해야

빛이 강하게 비추면 이내 사라지고 만다. 인격이야말로 진짜이다. 그리고 인격은 빛이 비출수록 더 자세히 보인다. 인격은 우리의 진짜 모습과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일치하는 상태이다.

격이 널리 알려지자 미국 골프 협회는 스포츠맨십 상에 바비 존스 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3) 인격은 영향력을 낳는다.

존경을 강요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높은 자리나 부를 얻으면 당연히 영향력이 생기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오랜 시간 꾸준한 인격을 갖고 있어야 존경과 영향력을 얻고 유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영향력은 인격을 기초로 한다. 인격이 바닥이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익혀도 쓸모가 없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좋은 의도를 품어도 소용이 없다. 신뢰가 없으면 장기적인 성공의 기초가 없는 셈이다. 인격은 부모에게서 물려받거나 돈으로 살 수 없다. 인격은 자로 재거나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인격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쌓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격이 없으면 남들을 이끌 수 없다.

4) 인격은 장기적인 성공을 낳는다.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것이다. 인격은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수준 이상으로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인격은 거친 위험 속에서도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역경 앞에서도 변함없는 모습을 보일 때 인격이 더 강해진다.

2) 옳은 일을 하라.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말했다. “최고 임찰액을 뿌릴만한 만한 미덕을 갖춘 사람은 보기 드물다.” 하지만 강한 인격을 기르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준
The Korean Christian Press ■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 (323) 665-0009 (대 표) (323) 665-9025 (광고국)
· Fax: (323) 665-0056 (편집국) (323) 665-0046 (광고국)
· E-mail: la@chpress.net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 (718) 886-4400 (대표) (718) 886-4424 (편집국)
· Fax: (718) 886-0074 (대표)
·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10월 31일까지 입학하시면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 (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 Master of Church Music
 -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 Master of Divinity
- Doctoral Degree Programs**
 - Doctor of Ministry (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Doctor of Church Music
 -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 강의**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전화 (636) 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 327-4645 / Fax: (636) 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5751
E-mail: wdc@midwest.edu

미전역 절반 이상 동성결혼 사실상 합법화

(1면에서 계속)
"미국은 하나의 헌법이 있는 한 나라다. 연방 대법원이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고 유보한다면 어떤 주에는 차별이 있고 어떤 주에는 없는 불균일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법무 차관을 역임한 시어도어 올슨 변호사는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유사한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하급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동성 결혼 금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은 2013년 6월 '미국 연방 정부 대 원저' 소송 판결에 의거한 것이다. 이 소송은 결혼보호법(DOMA) 제3조와 관련된 심리였다.

결혼보호법은 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해 발표된 법으로, 연방정부가 세제혜택이나 사회복지를 적용할 대상을 전통적인 의미의 부부에만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진보 성향 대법관 4명과 보수 성향 대법관 4명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중도 보수 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진보 진영과 같은 의견을 보이면서 동성결혼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었다.

바로 결혼보호법이 제정된 동성 동성 커플에 대한 반감 때문이며 이는 연방정부의 평등보호 조항에 위배된다고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엄격한 법조문이나 조항 그리고 판례들의



적용이라는 미국 사법 제도의 전통대신, 동성애에 대한 반감과 편견이 연방정부의 평등보호 조항에 어긋나기에, 결혼보호법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된 법률의 평등보호조항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는 이른바 '엄

격 심사기준(strict scrutiny)'을 적용한다. 그 밖의 법은 '합리성 심사(rational basis test)'만 거친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의 진보적 대법관들은 이런 문제는 한 번도 거론하지 않고는 수정헌법 제5조 적법절차 조항으로 넘어가며 주법과 연방법의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 결과, 법적인 혼란만 남았고, 이번에도 판결을 미루고

치제 덕택에 동성 결혼 논쟁은 법원에서 허용하는 한 각 주마다 계속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혼란과 파장은 더욱 더 거세게 진행되고, 신앙이나 종교적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기업들이 연이어 줄소송을 당하게 될 예정이다.

"하나님의 섭리" 즉 "신의 도성"을 지상에서 실현하겠다고 미국을 만든 건국자들의 신앙과 정신이라는 항로를 이탈한 사법부의 이번 판단이, 연방법무원 원칙에 의거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혼란과 파장은 더욱 심화될 것이 명백하다.

복음주의, 보수주의 진영에서는 실망과 좌절로 흔들리고 있지만, 사법제도 안에서의 승리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미 전역의 지역교회들을 중심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어내는 결혼의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기도하면서, 알리며 여론의 흐름을 바꾸어야 하는 커다란 사역을 먼저 이뤄내야 한다. 그러면서 연방대법원에 올라온 주 법원들의 상고 하나하나에 총력을 기울여, 더 이상의 혼란과 무질서가 없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재능만으로 부족, 인격으로 덮어야 한다.

(2면에서 계속)
그릇된 길에 당장 유리해 보일 때 옳은 길로 가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그리고 손해 볼 것이 분명할 때 옳은 일을 하기란 쉽지 않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옳은 일을 하기는 어렵다. 하

지만 바로 그 순간을 통해 사람의 인격이 강해진다.

3) 삶을 다스리라.

인격이 약한 사람일수록 주변 환경을 탓한다. 물론 살다보면 우리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많

다. 하지만 환경은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통제권 안에 있다. 인격은 언제나 선택의 문제이다. 자신을 탓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도 언제나 환경 탓만 한다. 인격을 기르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결론으로, 여러분에게는 하나

님이 주신 재능이 있다. 그것을 개발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는 인격의 사람이 될 잠재력이 있다. 그 잠재력을 개발하라! 다른 무엇보다도 인격이 여러분을 재능 플러스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보호해줄 것이다.

(1면에서 계속)
지난해 '사이언스'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문학작품을 읽는 것이 인간관계 형성에 필수적인 타인의 정신 상태와 신념을 이해하는 기술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1997년 '발달심리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는 초등 학교 1학년 때 읽기 능력이 고 2 때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독서율은 감소해왔다. 올해 한 설문 조사에서 18세 이상 미국 성인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책을 한권 이상 읽은 사람은 76%로 2011년의 79%보다 감소했다.

독서율을 높이려는 시도는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시애틀과 브록클린, 보스턴, 미니애폴리스 등지 북클럽들은 편안한 의자와 와인, 클래식 음악이 있는 묵독(silent reading) 파티를 주최한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다이애나 라 카운테는 몇 해 전 가상의 슬로 리딩 클럽을 만들었다. 인터넷 상에서 선정한 도서에 대해 토의하는 모임이다. "내가 책보다 트위터를 더 많이 읽고 있다는 걸 깨닫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화면은 좌에서 우로 일직선이던 글 읽기 패턴을 중요한 정보만을 찾아 이리저리 훑어보고 건너뛰는 패턴으로 바꿔놓았다.

웹페이지를 보는 232명 피실험자의 안구 움직임에 관한 2006년 연구에 따르면, 처음 한 줄은 다 보지만 그 다음 몇 줄은 절반 정도 밖에 읽지 않고 결국 페이지 왼쪽에서 맨 밑까지 수직으로 죽 쓸어내리는 'Z'자형 패턴으로 바뀌었다.

이런 독서관은 심층적 독해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

지 않는다. 각종 링크들이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텍스트를 읽으면 활자로만 된 일반 텍스트를 읽었을 때보다 이해력이 저하된다. 문자와 소리, 움직이는 이미지를 혼합한 멀티미디어 화면도 마찬가지다.

슬로 리딩은 방해요소 없이 조용한 환경에서 중간에 끊지 않고 일직선으로 읽는 패턴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옹호자들은 휴대폰, 컴퓨터를 멀리한 채 편안한 의자에 앉아 읽는 시간을 30-45분 이상 가자고 조언한다. 간간히 메모를 하는 것도 텍스트에 보다 깊이 빠져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일부 열혈 옹호자들은 인쇄된 책이 최고라고 주장한다. 집안 어디서나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읽지 않을 확률도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슬로 리더들은 전자책이나 태블릿도 인터넷과 연결만 돼 있지

않다면 괜찮다는 입장이다.

브록클린에서 열린 묵독 파티에 몇 번 참석했다는 아비르 호크는 다음번엔 휴대폰으로 책을 읽을 계획이다. 다만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 업데이트 통보가 독서를 방해하지 않도록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려 한다.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다는 슬로 리딩 클럽의 윌리엄스는 첫 모임에서 회원들에게 생산적인 독서에 관한 팁과 좋아하는 글귀를 적을 수 있는 노트를 나눠주었다. 모임을 가질 때마다 회원들은 마치 요가를 할 때처럼 책을 열기 전 몇 분 동안 심호흡으로 정신을 가다듬는다.

일요일 저녁모임에는 20-30명 정도가 참석했다. 새로 나온 회원들을 대상으로 느낌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차분하고 평화롭고 사색적인 시간이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윌리엄스는 전했다.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시편 114편 : 인생은 장애물 경기장이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서 빠져나오도록 구원해 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출애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선, 자기 마음 안에서 어떤 사명의 생각의 형태가 형성되었을 때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출애굽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사명의 광야의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잘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 속에는 수시로 애굽이 형성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거기에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성령의 감동의 부드러움 대신에 경직되고, 하나님에 대해 거룩한 은혜의 감동의 마음이 변하여 가시가 돋치는 현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매여 포로생활을 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노예생활했던 것처럼 그것에 얽매어서 포로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명이 주는 생각의 멍에를 매고 힘듭니다. 자유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마음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이십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이 자유입니다. 마음에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찬 것은 자유가 아니고 종입니다. 자유인에게는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종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말이 옳다고 주장하더라도 마음은 굳어져 있고 무거운 멍에로 인해 편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경에 있는 우리를 빼내십니다.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시작입니다. 기도는 마음이 사명의 높으로 가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돌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굳어진 마음에 잡혔다 하면 받았던 은혜를 다 빼앗겨 버립니다. 영적 강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눅15:11-32)를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갑니다. 끝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고, 본인은 죄로 인하여 마음은 상처투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잘못만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필사의 탈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종으로 살고 멍에를 매고 시달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깨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자유를 빼앗겨 버리고 종의 멍에를 매면 마음의 평강은 사라지고, 성령의 힘이 없고, 사명의 고통이 가득하게 차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왔다. 이제는 나에게 주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딤후4:7, 8)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이 그런 길입니다.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길입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천국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둘째는, 3절에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다는 홍해를 말합니다. 요단강이 물러갔다고, 홍해가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가 도망갔다. 가로 막고 있던 물이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구원 중에 첫째 구원은 문제 속에서 빠져나가는 구원이고, 둘째 구원은 우리가 있는 여기에서 기도함으로써 대적이 물러가도록 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곳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시고, 다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사명의 생각이 물러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8절에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라고 했습니다. 못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두 가지의 구원을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한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On Campus Courses 2014 가을학기 수업 안내

Sept 29-Oct 3(9월 29 -10 월3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6-10 (10월 6-10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 / 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 디자인)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겸손이 회복될 때

금요 집회를 마친 후 저희 교회 처음 출석하신 분과 초면이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분은 도미하신지 33년 되신 분인데 반세월을 이곳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시며 살아오셨다는 말씀과 함께 많은 경험을 이야기하시면서 한인사회를 염려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민초기 이민자 사회의 성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학생들은 열

심히 공부에 전념하여 근면 성실한 민족으로 타 인종에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박한 상점들이 있었고 약간의 촌스러웠지만 그래도 정감 있는 분위기를 갖고 있던 천사의 도시였다 합니다. 물가도 물론 저렴하여 50달러만 가져도 마켓 커트가 차고 넘칠 정도로 모든 것이 풍성했던 기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90년

도에 접어들면서 한국에 IMF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 방법으로 미국에 이민 오면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어졌다고 합니다. 타운 곳곳에 주점이 생겨나고 노래방과 게임방 같은 유흥업소들이 늘어나면서 퇴근 후 가정으로 돌아가던 성인들은 주점으로 발을 돌리게 되었고, 학생들은 이른 하룻길에 노래방으로, 게임방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작금의 한인사회를 걱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과거 고국을 떠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마을 곳곳에 있는 술집과 유흥업소 퇴폐문화가 못마땅해서 인데 그 모습을 한인 타운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다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들어온 퇴폐문화로 인해 한인 타운의 이미지가 손상된 것이라고 하시며 이제 더 이상 근면하고 성실한 한인사회가 아니라며 아쉬움을 토로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각자의 직업에 충실하였고 토요일과 주일에는 교회에서 친구들과 이웃을 만나 교제하는 것이 전부였

던 문화였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이리다가 한인교회도 유럽화 되어지고 미국 교회처럼 교회가 퇴폐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십니다. 예의바른 동방의 한인은 이제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문화, 문명의 발전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고유 전통이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더 이상 수줍으면서도 야무진 여인들의 모습도 부지런한 남성들의 근면하게 일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는 한인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011년 호주의 한 80세 부호가 한인 여성상대로 구혼광고를 냈었습니다. 지원 여성들의 연령을 보면 40대가 40% 정도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10% 정도이며 30대가 30%, 50대가 20%이었다고 합니다. 불과 3일 만에 2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있었다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안타깝고 민망한 것은 상당수의 지원여성 중에 유부녀도 신부 후보로 신청하였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치달고 있는 한인여성의 모습은 지금도 씁쓸함이 더합니다.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을 기도하는가 하면 우울증과 같은 심한 정신질환과 각종 정신장애로 시달림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큰 변화가 없는 한 한인사회의 미래가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더욱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이에 정신적, 문화적으로 리더가 되어야 할 이민사회의 교회조차도 특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주간 고국방문을 통해 한국 교회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방문하는 교회마다 성도의 수가 줄고 무리한 성전 건축으로 인해 적지 않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사모들이 직장생활을 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가하면 목회자들도 생활고로 인하여 일하는 분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경제 부흥과 발전으로 인해 민생은 풍족해졌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뢰와 존경을 잃어버린 작금의

한인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생활에서 나온 결과라는 것을 통감합니다. 이민 초기 교회에 부임하였을 때 어느 성도분이 아내에게 “사모님! 어느 교회라면 사모님이 김치도 담아주고, 아이들 학원에 픽업도 해주고 하는데요...” 한술 더 떠서 “어느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 어깨도 주물러 주는데요...”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저희 내외는 꿈같이 생각해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한 번도 담아본 일이 없는 김치를 담아와주며 피곤에 지친 성도들의 어깨를 주물러야 하는 목회자가 이민목회인가 생각하니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섬김의 중요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고쳤습니다. 지난 목회에 대한 반성을 하고 겸손히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민목회 16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 때 품었던 겸손함과 섬김의 마음이 있는지 반성해봅니다. 또 다시 옛 습관에 젖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고개를 숙여 겸손을 회복하는 목회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푸 / 른 / 초 / 장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 담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디매오는 예루살렘을 찾는 많은 순례자들이 오가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거지입니다. 그의 앞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쌍하게 보여지기 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역시 그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이름이 바디매오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자식들을 위해 부모의 애뜻한 마음을 담은 이름을 지어주기 마련이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 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게 된 어느 날부터 만남과 자유의 그날을 흠 모했고 어느 곳에서든 갈망했고 마침내 기다렸던 그날이 왔을 때 전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구걸을 위해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매오가 이제는 사람들을 부러워 하는 증거를 지니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동정

바디매오는 모든 이들의 시선을 주님께 옮기게 하고 그들로 달라질 수 있음을 확신케 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2)예수님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는 거지를 향해 동정을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선행입니다. 불쌍하다고 말하면서 지나치는 이들에 비해 몇 푼이라도 적선하는 손길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의 인생을 책임져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바디매오의 인생을 바꾸어주셨습니다. 무리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경과 관계로 더 나은 내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

아 있는 거지라도 내일이 불투명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도 믿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우리도 소원이 있으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문제를 만나도 같은 소원은 아닙니다. 맹인 바디매오의 소원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동냥을 얻기를 소원할 때 그는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원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환경에서도 달라지지 않는 세월에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원은 품고만 살아도 행복합니다. 삶이 곤고한 것은 목표가 없는 사람입니다. 목표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을 사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아픔은 라헬을 위해 칠년 동안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칠년을 며칠 같이 여겼습니다. 소원은 나를 바꾸어 줍니다. 소원이 나를 만들어줍니다. 건강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식습관을 바꾸게 됩니다. 운동을 위한 하루의 일과가 달라집니다. 요사이 좋은 성적을 소원하는 학생들은 흔한 스마트폰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2)우리도 믿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으로 부를 때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믿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믿은 것은 나사렛 예수님을 오실 메시야로 확신한 것입니다. 바디매오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밝은 희망이 헛되지 않았던 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었듯 우리도 믿으면 됩니다. 주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바디매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시길 믿었고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마9:27-30에 나오는 두 맹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심 역시 너희 믿음대로 되라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12면으로 계속)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마가복음 10:46-52)

첫째로 바디매오가 달라졌습 니다. 1)보게 되었습니다(52절) 누구라도 볼 수 없는 문제가 예수님의 의해 해결되었습니다. 동냥으로 오늘을 근근이 살 수밖에 없던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바디매오는 어두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빛을 얻게 된 그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은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울먹거리리는 음성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증언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입은 그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로 했습니다. 바디매오는 힘있게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3)희망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기록된 바디매오의 일은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갖게 합니다. 빛에 대한 희망이고 고침에 대한 소망이고 내일에 대한 꿈입니다. 그리고 탄식 속에 있던 이들은 의욕을 갖게 되고 절망 속에서는 해매는 이들은 비전을 품게 됩니다.

1)예수님은 아버지와 달랐습 니다. 아버지조차 내일에 대해 희망을 갖지 않을 때 예수님은 바디매오의 비참한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버지라도 지식에 대하여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 앞에선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누구라도 우리 자신의 일을 함부로 평가 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과 예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디매오는 바디매오의 아버지지만 예수님은 바디매오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바디매오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지만 예수님은 그 아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국은 어느 만큼의 시간이 지나 더해진 상처만큼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3)예수님은 세상과 달랐습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속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충분합니다. 길거리에 앉

도 여전한 소원이었습니다. 마침 무리와 함께 바디매오 앞을 지나시던 주님이 부르짖는 바디매오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라 하시며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주기 원하느냐?” 하 게 될 때 주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늘 품어왔던 소원이 있었기 때문 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냐” 분에 넘치는 소원이라 할지 모르나 결국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소원이 있으면 됩니다. 소원은 품으면 이루어집니다. 불순한 목적이 아니라면 됩니다. 주안에서 품은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품은 소원은 이루어지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은 이루고 싶은

사역자청빙

조지아 주 제2의 도시인 컬럼버스 반석장로교회에서 25,614 S/F의 새 예배당으로 확장 이전하면서 주님 나라 확장을 꿈꾸실 두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현재는 출석교인 310명(영어회중 40명 포함)이며, 아틀란타 공항에서 남쪽으로 90마일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는 32만명(한인인구 약 2천명)정도이며,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다운타운으로 선정된 전원의 도시이고, 대도시에 비하여 생활비 및 각종 보험비가 저렴합니다.

- I. 교육담당 부목사 (전도사)
- II. 행정담당 부목사 (전도사)

자격요건 1. 개인 경건의 시간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분
2. 목회학 석사(M Div) 이상의 장로교 목사 혹은 기독교 교육학 석사 이상의 장로교 전도사

제출서류 1. 이력서(한/영 각 1부)
2. 졸업(혹은 학력) 증명서
3. 본인 및 가족 소개서(가족사진 1매 포함)
4. 최근 6개월 내 설교 2편 (해당 CD/DVD 또는 website 주소제출)

서류 제출처 및 기간
1. 제출마감(도착기준) 2014년 12월 20일(토)
2. 제출처
1) 우편 Rock Presbyterian Church (Attn. Elder Ha, Jong Wook)
5301 Sidney Simons Blvd. Columbus, GA 31904,
2) Email: ha_jong@columbusstate.edu
3. 교회website: www.rockpc.org
4. 문의 Dr. Ha, Jong Wook, Elder Won, Young Soo
Tel. 706-580-9667(청빙위원회장 하종욱 경로) 혹은 706-333-6079(원영수 경로)

컬럼버스 반석장로교회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선거는 곧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상)

선거는 곧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CCC 대표 빌 브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크리스천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셨습니다. 5 Duties of Christian Citizens : 1. 기도하라 Pray! 2. 유권등록하라 Register to Vote! 3. 정보를 취하라 Be informed! 4. 참여하라 Be Involved! 5. 투표하라 Vote!!

캘리포니아 주정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로고를 볼 수 있습니다. My Voice, My Choice, My Vote! (나의 의견, 나의 선택, 나의 투표!)라고요. 미국의 역사를

-캘리포니아 주민 -선거일에 18세 이상 된 사람 -수감 중이거나, 가석방 중이거나, 주 교도소 수감형을 받고 카운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거나, 형법 제1170호(h)항에 의거 중죄로 복역 중이거나, 또는 석방 후 지역사회 감옥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그리고 법원이 정신적 무능력자라고 확인한 사람.

참고: 다 주로 이주했거나, 이름 또는 선호 정당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토마스 제퍼슨대통령은 정부와 교회의 권한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이라는 법안까지 만들 정도로 하나님의 법, 신앙의 자유, 시민의 웰빙을 가장 먼저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미국역사 속의 선조 "정치인" 즉 미국을 이끌어 가는 "거인 리더"들이었던 것입니다.

미국 시민들도 선거 때마다 "Godly Man"에게 그들의 소중한 투표를 주곤 했으며 선거날짜가 "하요일"로 잡혀있는 것은 주일(Sunday)에 교회에서 목사님

던 아메리칸 드림은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을 최우선했던 미국 선조들의 신앙의 유산으로 말미암은 축복의 열매 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미국의 "선거와 투표"의 문화는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과 같은 캘리포니아나, 뉴욕, 매사추사츠 등, 미국의 경제, 지식과 교육, 기술과 기업의 발전을 책임지던 대도시들이 더 이상은 시민을 보호하고 미래를 책임지는 "리더"들을 정치인으로 뽑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정치는 "Godly Man"들이 모여 기도하며 "Godly Man" 뽑아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책임이며 의무인 투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알고 있는 시민일수록 꼭 투표합니다. 자신의 투표 한 표가 미국과 캘리포니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미국의 "선거" "정치"의 유래와 역사를 알아!

- 꼭 기억할 중요한 마감일들!!
- 11월 4일 총선거의 날!
- 10월 20일 유권자 등록 마감일!(우편은 스탬프가 꼭 10/20일 까지 찍어야 합니다)
- 10월 28일 우편 투표용지 신청 마감일(투표를 집에서 하실 분에게만 해당)
- 11월 4일 오후 8시 우편 투표용지 발송 마감일
- 유권자 등록은 쉽습니다. 등록지(Voter's Registration)가 필요하면 RegisterToVote.ca.gov 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을 신청하거나 우체국, DMV, 도서관, 또는 일부 정부기관 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저희 TVNEXT.org에 방문하시면 유권자 등록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 RegisterToVote.ca.gov

미국이라는 나라는 건립할 때부터 정치인들을 "정치인"으로 뽑기보다는 백성을 잘 다스리는 성경적 의미에서 "백성의 리더"로 뽑았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건립 때부터 당시에 뽑혔던 대통령 부터 시작하여 미국의 "정치인"들은 주로 교회 목사님들, 교수, 선교사, 집사, 장로 등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민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품과 인격, 무엇보다도 "Godly Man"들이 모여 기도 시작하였으며,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도 했으며,

들을 통해 선거에 대한 자료를 얻고, 월요일엔 주로 금식으로 투표할 사람들을 뽑기 위한 지혜를 기도 후 겸허한 마음으로 임했던 것이 바로 미국의 "선거"의 유래며 역사이고 "정치"라는 것의 탄생인 것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겨우 200년 역사를 가지고 미국처럼 경제적으로나, 문화, 사회적으로 강국이 된 나라는 없었으며, 사람들이 미국을 좋아하던 싫어하던, 미국의 리더십이 얼마나 온 세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경제도, 문화도,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Pursuit of Happiness) 추구하

Politically Correct라는 극히 정치적인 문화를 형성하여 미국의 선거 때마다 Godly Correct 한 사람들을 뽑았다는 것조차 있고 있는 듯 합니다.

지난해 한 정치 세미나에서 한 인2세 주류정치인은 "낙서를 지우는 작은 일에서부터 이민정책을 바꾸는 것까지 우리 일상에서 정치와 연관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을 좌우하는 모든 것은 정치에서 시작됩니다. 투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선택이 아닌 필수"인 투표를 해야 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빌 브라이트의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신한 정치기, 빛과 소금"의 사명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둠과 부패해가는 사회와 국가를 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투표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다음에는 선거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특별히 무슬림들이 선거와 정치적 자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오는지도 소개하겠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 749-0577 E-Mail: t1spc0316@gmail.com

Q: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기독교로 회심한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하여 문제가 됨으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게 된 그 당시 유대교의 전통과 배경을 알고 바울이 이에 대해 어떻게 성경에서 비판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토렌스에서 이희은

A: 1세기 무렵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교로 개종하여야 할 것을 둘러싼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길러내는 힐렐은 그의 제자들에게 "여러분의 동료 피조자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들을 율법 가까이 데려오라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라의 백부장인 경건한 자 고넬료와 그의 식솔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에 대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God fearers)라는 칭호를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유대교의 예배와 생활 방식을

이방인에 대한 할례는 예수그리스도의 헛된 죽음 의미

수용하고는 있으나 아직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 않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완전한 개종자가 되어 그 당시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면 4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째, 의식적인 목욕-이것은 개종자의 세례(proselyte baptism)를 뜻합니다. 둘째 제사를 지내고, 셋째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자 사원을 해야 하고, 넷째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이방여자들은 할례가 제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 흩어진 평신도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방인 크리스천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일부교인들은 기독교로 회심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안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들에게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목전에서 어떤 미쁨도 받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강조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니라"(갈2:21). 그러므로 바울은 할례가 구원의 수단인 것처럼 전하는 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며 이런 사람은 천사라도 저주 받게 된다고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갈1:8). 구약의 율법같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을 초등학교에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공격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교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라 하느냐"(갈4:3, 9)이러한 행위는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갈4:10-11).

목회자 청빙

Valley 지역 North Hills에 위치한 벨리중앙장로교회는 39년의 전통을 가진 장로교회로서 말씀과 사랑으로 새로운 비전을 인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을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 자격 *

1. 개혁신학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M.Div) 이상 소지하신 분
2. Full Time 사역자로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로 목회 경력 5년 이상 교회를 섬기신 분
3. 합법적인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4. KAPC 교단에 가입할 수 있는 분

* 제출 서류 *

1. 이력서(가족 사진 첨부)
2. 목회 계획서(비전, 교회 운영계획 등)
3. 자기 소개서(목회 경험에 대한 세부 내용 포함)
4. 최근 설교 원고2편(CD가 아님)

* 접수 마감: 11/15/2014 까지

* 참고 사항 *

1.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하신 후보자들에게 2차 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만드셔서 반드시 E-mail 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E-mail: vkpc7@gmail.com
벨리중앙장로교회 청빙위원회 앞
Valley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15204 Plummer St. North Hills, CA 91343

벨리중앙장로교회

신암교회 담임목사 청빙

브라질 상파울로 신암교회(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에서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합니다. 본 교회는 설립 25년 된 교회로 자체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체육관과 교육시설(각 교실, 도서실 등)이 완비된 교회입니다.

1. 자격: (1) 장로교 신학교(합동측) 본 노회 가입에 적합한신 분 (2) 연령 40대에서 50대

2. 제출서류: (1) 목사 안수 증명서 (2) 이력서(사진은 여권사진 크기) (3) 가족소개서 및 가족사진 (4) 담임목사 목회방침 계획서 및 설교 CD

3. 제출방법: (1) 직접 방문 (2) 우편송부시에는 반드시 등기로 (3) E-mail: shinamchoungbing@hotmail.com / shinamchoungbing@gmail.com Contato: 00551194121-0855(강용학 장로)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보낼시 두 이메일 주소로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처: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신암교회(TEL. 2693-0314) (R. Rodovalho da Ronseca, 194-PARI, São Paulo SP Brasil CEP 03028-030)

5. 제출마감: 2014년 11월 30일 까지(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문의: 청빙위원장 강용학 장로(011-94121-0855)

미주한인 신암교회

증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네팔의 다누와르 라이(DANUWAR RAI)



네팔의 작고 독립적인 왕국은 인도와 티베트 사이 히말라야의 남쪽 비스듬한 산을 따라 위치해 있다. 대략 110개의 부족이 있으며, 이들 각각의 종족이 자신의 구별된 문화를 소유하고 있다. 대부분 생계를 위해 농업을 하고 있다. 대부분이 가난하며 미발달됐다.

다누와르 라이는 동부 네팔의 가장 큰 종족인 라이에 속해있다. 라이 종족은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며, 그들 자신의 종교적 믿음을 갖고 있다. 언어는 자신의 언어로 부터 대부분 그들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지역적 혼합된 방언까지 변형됐다. 비록 얼굴의 특징들이 다소 몽골인과 같을지라도 다누와르인은 몽골인과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구의 딸이니나, 마하에바, 마레마 여신들의 후손들이라고 믿는다.

삶의 모습

다누와르 라이인들은 기본적으로 쌀을 경작하는 농민들이지만 기술이 빈약해 생산량은 현저히 부족하다. 낮은 지역에서는 쌀을 경작하고, 높은 해발에서는 감자와 옥수수, 밀과 보리를 재배한다. 이 부족의 남성들은 밭을 갈고, 여성들은 씨를 뿌리는 것을 돕는다. 가족들은 종종 추수시기에 각기 서로를 도와 다정다감하다. 농부들은 잉여 농산물을 거래하고 등유와 소금과 같은 필수품을 구입한다. 또 공예품과 재단업으로부터 부족한 수입을 공급한다. 이들은 전형적으로 초가 지붕으로 덮여진 돌 또는 목재 집에서 살아간다. 집의 바깥쪽으로는 나무 현관이 있다.

대체로 라이족은 용감하고, 대담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현재 역사에서 왕실 네팔 군대에서 그들의 용감함에 대해 세계적인 존경을 받아왔다. 군에 입대함으로써 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존경을 받고 영웅 대우 받을 수 있고, 특별히 군에서 높은 위치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라이 민족 사이에서는 결혼은 매우 축제적 의식이다. 어떤 결혼식은 결혼의 세부적인 것을 준비하는 콩피(kongpi) 또는 middlemen에 의해 쉽게 준비된다. 선물은 가족에게 주며 만약 이를 받아들인다면, 결혼날짜를 잡을 수 있다. 또 다른 형태는 한 사람이 한 소녀를 선택해 "arranged kidnapping"을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방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결혼 선물은 신부와 신랑의 부모

에 의해 주어지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 마을의 원로에게도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돼지 수탉인 한 동물의 희생의식이 또한 결혼에서 행해진다. 고기와 술은 풍부하게 제공된다. 보리와 감자로 만든 음료가 인기가 있다. 그들은 밤을 지새우며 노래하고 축제를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네팔은 오랫동안 세상에서 등지고 잊혀진 국가였다. 정부는 전도의 어떠한 형태도 강력히 규제하고 복음의 확산을 금지하고 있다. 크리스천임을 공표했을 때 주어지는 형벌은 가혹하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

문맹은 이 나라에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기독교인들은 교사로 네팔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 다누와르 라이는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 또는 예수 영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 최근에 한 선교단체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지만 크리스천은 오직 19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신앙

왕족을 포함한 네팔인구의 90%는 힌두교 신자다. 그러나 힌두와 불교신자가 함께 존재하며, 다소 섞여있기도 하다. 다누와르 라이의 대부분은 힌두교신자다. 그러나 또한 불교신자들과 정령숭배자들도 있으며 그들은 지역신과 초자연적인 힘을 믿는다. 이러한 혼합된 신앙은 다양한 종류의 신들과 예배형식을 만들어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대형교회 목사, 노숙인돕기 위해 노숙자로

미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노숙인 겨울철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숙한 지 9일 만에 목표액인 10만 달러 이상을 모았다고 미국 지역매체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달 말 시작된 모금 운동에는 8일까지 840명이 참여해 모두 11만5000달러를 기부했다.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의 '캐피털크리스천센터(CCC)'의 릭 폴(Rick Pol) 목사는 지난달 28일 주일예배 때 "노숙인 사역을 위해 10만 달러를 모을 때까지 노숙할 것"이라고 깜짝 발표를 했다. CCC는 4000여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대형교회다.



노숙인들에게 먹고 잘 곳을 마련해주고 상담도 하는 사역이다. 지역교회들과 연계해 몇 해 전부터 진행해 왔지만 시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폴 목사는 지난 5일 새크라멘토 시장과 만나 4시간 동안 대화하며 노숙인 사역에 대한 지지를 얻어냈다.

폴 목사는 모금 목표를 이뤘지만 오는 12일 주일 저녁 예배 전까지 거리생활을 이어가기로 했다. 노숙인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을 고민하기 위해서다.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했지만 거리에서 배울 것이 좀 더 남아 있다"며 "이번 주 일요일, 꺾어진 모습 그대로 교회에 들어가 설교할 것"이라고 말했다.

UMC, 동성결혼 집행 목회자 36명 징계하기로

미국 연합감리회(The United Methodist Church) 펜실베이니아연회가 교단법을 어기고 동성결혼식을 축복한 36명의 목회자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이 36명의 목회자들은 지난해 11월 9일 필라델피아의 아크스트리트연합감리교회(Arch Street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두 남성 커플의 결혼식을 축복해 연회에 고소당했다.



미국연합감리회 규례집에 따르면, "성직자는 비록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역이라 해도 동성결혼식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36명의 목회자들은 올해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전에 동성결혼식에 참석했다. 펜실베이니아연회의 페기 존슨(Peggy Johnson) 감독은 "이들 목회자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며, 자신들이 UMC 교단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다는 점을 시인하게 하는 것으로 고소권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기 존슨 감독은 그러나 카리스마니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이 목회적인 염려와 사랑으로 이 같은 일을 했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교단법을 따르지 않

은 점은 용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내가 관찰하는 구역 내에서 목회자가 동성결혼식을 주례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재판에 회부할 것이고, 연례총회에서 중대한 의제로 다루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6명의 목회자들은 공식적으로 아들의 동성결혼 주례를 섰다가 파면당했던 동료 프랭크 웨퍼 목사를 지지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출신으로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목회해 온 웨퍼 목사는 2007년에 동성애자인 장남이 동성 연인과 결혼식을 올릴 때 이를 집행한 것이 문제가 되어, 작년 12월 파면을 당했다가 지난 6월 복권됐다.

지역 사법위는 웨퍼 목사에게 30일간 목회자 자격을 박탈한다며, 다시 한 번 동성결혼식을 집행하거나 축복할 시에는 목회자 자격을 영구적으로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웨퍼 목사는 동성결혼식을 집행할 권리를 고집했고, 이에 따라 파면이 결정됐던 것이었다. 그러나 교단 북동부지역 항고위원회는 웨퍼 목사 항고를 받아들여 복권을 선언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언제든 그가 원할 때 동성결혼식을 주례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그런데 지난 7월 중순, 교단 측은 북동부 항고위원회의 결정이 다시금 교단 내 최고 법원인 연합감리교사법위원회(UMJC)에 제소되어 그의 복권 문제가 검토 중이며 최종 결정은 10월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IS, 야지디족 10대 소녀들 성노예로 팔아

이슬람국가(IS)가 포로로 잡은 소수종교인들을 어떻게 학대하는지 자세히 기록한 새로운 보고서가 지난 12일 나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0대들과 여성들은 결혼이나 성접대를 강요받는다. 야지디인 남성은 이슬람으로 강제 개종을 당하거나, 나이가 젊은 경우 IS 대원이 되는 훈련을 받는다.



8월 3일 IS가 종교적 소수파인 야지디인들이 거주하는 신자르(Sinjar)를 비롯해 이라크 북부 지역 대부분을 장악할 당시, 아이들을 포함한 수백 명의 야지디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이번 보고서는 박해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와치(The Human Rights Watch)가

IS에게서 탈출한 야지디인 16명, 억류된 이들의 가족 10명, 최근까지 IS에 포로로 잡혀 있는 2명과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휴먼라이츠와치는 인터뷰를 통해 IS의 통치 아래 놓인 야지디인들의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인터뷰에 동참했던 수많은 여성들은 "젊은 야지디인 여성들은 보통 IS 대원과의 강제적인 결혼을 위해 선택되며, 일부는 IS를 지원하는 이들에게 성노예로 팔려간다"고 증언했다. IS에게서 탈출에 성공한 15세 소녀 루시(가명)는 "3주 동안 억류돼 있다가 친인척을 포함한 200여명의 여성들과 함께 라카(Raqqqa) 지역으로 이송됐고, 그곳에서 2-3일 정도 머물렀다. 첫째 날 무장한 IS 대원들이 와서 20명의 여성들을 데려갔다. 나중에 한 남성이 그들은 팔렸다고 설명해주었다"고 말했다.

루시와 친인척은 다음날 팔레스타인 IS 대원에게 팔렸다. 그 대원은 이들을 1,000달러를 주고 샀다고 말했다. 그날 밤 루시의 언니는 또 다른 대원에게 팔렸고, 팔레스타인 대원은 루시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루시는 그가 잠든 사이에 도망쳐 나왔다. 그녀를 비롯한 인터뷰 참가자들이 제공한 내용은 최근 유엔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유엔 보고서 역시 "IS가 여성 포로들을 시리아에 데려와서 성노예로 팔았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주 또 다른 15세 야지디인 소녀 역시 영국 텔레그래프와 인터뷰를 했다. 그녀는 IS 대원들이 1,000달러에 자신을 팔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녀는 2인이거나 팔렸다. 첫 번째 팔렸을 때 그녀는 가정부가 가지고 있던 총으로 자신을 산 대원을 살해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디에도 숨을 곳을 찾지 못한 그녀는, 자신이 억류돼 있던 곳으로 다시 끌려왔다고 한다.

그녀가 이미 팔린 줄 알지 못했던 이들은 그녀를 한 사우디 대원에게 1,000달러에 넘겼다. 그녀는 그 대원과 동료들에게 약물을 탄 차를 제공한 뒤에 도망쳤다. 그녀는 "그녀 나 이름을 'Abeer'로 바꿔서, 엄마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내가 무슬림이 된 이후 나와 결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무슬림이 되길 거절했다. 이것이 내가 도망친 이유"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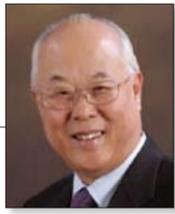
지금도 억류돼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성노예로 팔려가거나 IS 대원들에게 강제 결혼을 당하고 있다. 또한 강요에 의한 합동결혼식도 이따금씩 발생한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리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웅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덴버에담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세환</p> <p>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일-금)</p> <p>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YKoreanchurch.com</p>	<p>덴버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형만</p> <p>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일-토)</p> <p>Tel. (7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oc.org</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혜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www.kpcoc.org</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봉운</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Levittown, PA 19057</p>	<p>벤델교회</p> <p>담임목사: 진용태</p> <p>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일-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p> <p>담임목사: 전덕영</p> <p>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초등학생부: 오전 10시, (토): 오전 11시 유치, 유아: 오전 10:00</p> <p>Tel. (215)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샬롯장로교회</p> <p>담임목사: 나성균</p> <p>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p> <p>Tel. (254)529-0900 / 0998(렉스쿨링)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새시온침례교회</p> <p>담임목사: 정용교</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영양)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p> <p>Tel. (860)458-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은일</p> <p>주일영양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일-금)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ocseattle.org</p>	<p>알칸사 제자들과교회</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일-토)</p> <p>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kpcoc.org</p>
<p>앵커리지영리문교회</p> <p>담임목사: 유재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소영리문교회</p> <p>담임목사: 하태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양)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p> <p>Tel. (915)755-1490, 사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생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용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p> <p>Tel. (254)8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p>	<p>온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환</p> <p>주일새벽기도: 오전 11:00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54)8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EM) 영양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일-토)</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ocseattle.org</p>	<p>주예수교회</p> <p>담임목사: 배현찬</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4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p> <p>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p>큰무리교회</p> <p>담임목사: 나광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www.josephvision21.org 매일저녁7시(금, 토, 주일)</p> <p>Tel. (410)203-0516, 사택. (410)203-0512 3173 St. Charles Pl. Ellicott City MD 21042</p>
<p>타코마 삼일교회</p> <p>담임목사: 정태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새벽 6:00(토)</p> <p>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p>	<p>타코마새생명교회</p> <p>담임목사: 임규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말린)</p> <p>Tel. (253)535-6207, 531-8424 Fax. (253)539-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장호</p> <p>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토)</p> <p>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cc.org</p>	<p>템프장로교회</p> <p>담임목사: 윤정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말린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5:30(일-금) 오전 6:30(토)</p> <p>www.kpcocaz.com Tel. (480)726-018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p> <p>담임목사: 조진모</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원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일-토)</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p>	<p>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선만</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p> <p>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p>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 </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52)



정성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종신대명예교수

카이퍼의 교회론

카이퍼는 교회의 개혁자이다. 그의 관심은 화란 개신교회(Hervormd Kerk)를 개혁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성경 중심의 바른 기독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또한 카이퍼는 25세에 이미 “요한 칼빈과 요한 라스코의 교회론 비교연구”(Joannis Calvinii et Joannis a Lasco de ecclesia Sententiarum inter se Compositio)를 통해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바 있다. 카이퍼는 그의 일생동안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최전선에 서 있었다. 교회의 개혁자로서 카이퍼의 역할과 투쟁은 다른 장에서 다루기로하고 여기서는 카이퍼의 신학 이론 중에서 교회론만을 주로 말하고자 한다(이를 위해서 앞서 인용한바 있는 맥골드릭McGoldrick의 책을 특별히 참고했다).

카이퍼는 당시 국가교회에 대해서 매우 실망했다. 그는 말하기를

현대 기독교 국가는 신앙적인 것이 10퍼센트라면 90퍼센트가 철학으로 혼합되어 옛날 이방인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 속성

있었다. 이에 반해서 카이퍼는 참된 교회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입시키는 그리스도의 몸이

들이 있기에 교회라고 한다. 교회는 조직적이고 기구로서의 교회도 중요하지만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성령이 바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카이퍼는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인정했으나 그것이 필요 불가결한 특징으로 보지는 않았다.

카이퍼는 교회의 규례와 관리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졌다. 그 당시 화란에서는, 모든 국민은 국가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해 카이퍼는 이런 유익의 낙관주의 사상을 강력히 반대했다. 동시에 카이퍼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선언한 사람들의 사회로 만든다는 견해도 수용하지

또 교회는 그 지역의 회중을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고 했다. 카이퍼는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집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하는 1차 도구로 생각했다. 카이퍼는 생각하기를 민주국가를 지향하는 주권재민설(主權在民說, Popular Sovereignty)이 교회에 적용되는 것을 반대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자들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며, 교회의 근원을 통제하는 구속력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고 했다. 카이퍼는 교인들이 교회 일을 주관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을 가진 것이 불란서혁명 사상과 주권재민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절대적 지배를 받는 엄격한 영적 군

중이다. 성도들은 장로 중심의 조직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며 거기서 선택된 장로들이 권위를 행사하며 교인들을 훈련시킨다. 목사는 교육시키는 장로이며, 지도력을 얻사로 받는 평신도들이 장로들을 견제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등급 매기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시다. 집사들은 성도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해결해주는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집사들이 장로보다 낮은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의 봉사를 실천한다.

참된 교회는 성직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목사들이 서열을 주장할 여지가 없다. 성도들은 목사의 가르침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성직자이며 영적인 분별력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라 했다. 그러기에 평신도들은 태만하거나 교리적으로 잘못 가르치는 목사를 항거할 수 있다고 했다. 카이퍼의 교회관리지침은 화란의 국가교회인 개신교회를 비판하고 참된 개혁교회를 만들기 위한 총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특히 카이퍼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는 성직자란 말은 종교개혁의 만인제사장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카이퍼의 이 말은 후일 화란의 선교신학자 헨드릭 크레머(Hendrik Kraemer)의 ‘평신도 신학’의 이론적 뒷받침이 되지 않았다 싶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입시키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지역사회 중심 · 모든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서 성직자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잠입해 들어와서 그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카이퍼가 실망한 대로 화란국가교회인 개신교회는 정통신앙에서 한참 벗어나서 현대주의적인 불신앙 풍조의 온상이었다. 즉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교회를 지배하고

라고 했다. 카이퍼는 하나님의 선택을 교회의 근원으로 보았다. 사람은 그 영혼이 본질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참된 교회를 구성하며, 그 안에서 교회라고 알려진 가시적인 종교 조직체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실제로 교회 존재하는 것은 거기 택함 받은 자

않았다. 카이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누구나 회원이 되는 것이 기구적인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듯이 해서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카이퍼는 교회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것을 장려했다.

주국이다라고 했다. 비록 카이퍼가 교회를 영적 군주국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서 그 분의 교회를 다스린다고 했다. 그런데 그 직분자들은 교회의 관리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가정사역 칼럼



생각을 훈련하라!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아직까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요17: 14-18). 결과적으로 우리는 경건치 못한 생각을 갖도록 자극을 받습니다. 요한 일서 2:16절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대중매체로부터 보거나 듣는 많은 것들은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관능적인 생각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우리 생각 속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고,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데 파수꾼이 깨어 있어서 원수의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자기의 소임을 다 하듯이, 우리의 마

음을 선하고 거룩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접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테이프, 텔레비전 쇼, 영화, 책, 잡지, 대화 등이 당신의 육신적인 본능에 끌린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당신을 인도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치 당근을 채배하기 원하는 사람이 오이씨를 심으면서 그것이 커서 당근이 되기를 바라지 않겠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씨를 마음 밭에 심고 있습니까? 염려 근심 두려움의 씨를 심고 있는지 아

니면 믿음 사랑 소망의 씨를 심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부정적 생각 중에 근심 혹은 염려를 극복하는 것에 대해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근심이란 불안한 기분이나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염려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원치 않는 생각이 자주 일어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근심 또는 염려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습성을 부모나 가까운 친지의 삶의 태도로부터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할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대신 걱정해주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필자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필자는 외도, 사별, 이혼, 관계의 어려움 등 다양한 위기가정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고 있으면 온갖 종류의 두려움과

염려들이 은근슬쩍 밀려들어와 내 마음에 자리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의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할까?’ ‘상담했던 케이스 같은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을까?’ 또 ‘자녀들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등의 다양한 염려가 싹트고 한번 시작된 염려 또는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두려움이 생기게 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소개합니다.

독서카드에 “stop”이라고 적고 뒷면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할 수 있는 성경구절을 적어 둡니다(예: 빌4:6). 이것을 갖고 다니다가 염려나 부정적 생각이 계속 이어질 때 ‘stop’이라고 적힌 카드를 꺼내 들고 “stop”이라고 말하고 뒷면에 적힌 성경구절을 읽습니다. ‘stop’이라고 적힌 독서카드를 꺼내드는 순간 부정적인 생각의 사이클을 깰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훈련하면 점점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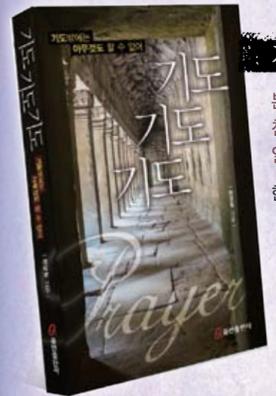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요일 4:16, 18).

결론적으로 육신을 좇아 염려 또는 부정적 생각의 사이클을 돌리기보다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무엇에든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며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빌4:8 참조).

이메일: familykum@gmail.com

한명철 목사의 저서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도 기도 기도

본서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용사들을 모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의 작은 불씨를 모아 큰 불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게 할 것이다.

한명철 지음 / 336면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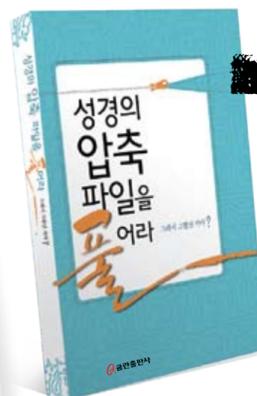
숨겨진 신화



이 책은 <<인봉된 책>><<개봉된 책>> 요한계시록 주석을 요약해 평신도들도 읽을 수 있게 작업한 것으로 계시록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시대를 위한 주님의 메시지가 확연히 드러나고 잘 활용될 것이다.

한명철 지음 / 304면 / 12,000원

성경의 압축 파일을 풀어서



성경은 일일이 다 배경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압축 파일과도 같다. 성경의 배경을 알면 그 압축 파일을 풀 수 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성경의 배경을 알게 되고 또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진희 지음 / 344면 / 13,000원

이스라엘 성지순례



주님과 함께 걷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스라엘 구약 역사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배경을 살펴보고 나사렛, 예인케렘, 베들레헴, 예수님 세례 받으신 곳과 공생애 사역지, 예루살렘, 기타 이스라엘 성지를 지도와 사진을 곁들였는데, 전문 사진작가 Lisa의 손길로 현장감을 더했다.

탁은숙 지음 / 328면 / 20,000원

인봉된 책 / 개봉된 책
요한계시록 주석
한명철 지음 / 1-11장 / 672면 / 25,000원
12-22장 / 584면 / 23,000원



봉괴의 신호음이 들릴 때
고난의 현실을 피하려 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며 헤쳐 나온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여 그들의 실패와 재기를 통해 고난 극복의 지혜와 기술을 담았다.
한명철 지음 / 296면 / 13,000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처음 말씀이 창세기이고 창세기 중에서 1장은 첫 사람 아담도 경험하지 못한 내용이다. 거기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가장 강조되어 있고(32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는 “가라사대(10회)”와 “그대로 되니라(5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풍성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7회)”는 등의 반복된 강조점들이 있다.

창세기 1장에서 두 번째로 많이(10회) 강조된 특이한 다른 강조점 하나가 있는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필자도 성경의 “종류대로”의 창조가 과학적이고 역사적 사실이었을 수밖에 없음을 지난 여러 칼럼들을 통해 강조하였다.

창세기 1장에서 “종류대로”가 강조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정체성과 깊은 상관이 있다. 진화론에 의하면 모든 생명체들은 38억년 전 지구에서 우연히 생긴 한 세포에서 진화되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모든 생명체들은 멀고 가까움은 있지만

창조과학 칼럼 (208)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다 그의 손에 (17) 가짜 아담, 가짜 예수, 가짜 신앙

지금은 멸종된 유인원에서 사람이 진화되어 나왔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인 아담은 없었고 따라서 인류는 아무리 똑똑하고 특이해도 동물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조상이 될

한 거짓 믿음이 죽음과 고통을 어떻게 잘못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오랜 세월을 걸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인간성의 매개체가 될 동물의 형태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는 엄지손가락이 각

된 생각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누울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씀에 동양의 과장법이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C. S. 루이스처럼 진화론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인류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정답이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리게 된다. 결국 구원자도 맹목적으로 믿어야만 되는 상황이 되고 만다.

만약 성경대로 창조된 역사적인 아담이 없었다면 혹은 루이스와 같은 유신론적 진화론의 아담을 가정한다면 사람의 죄와 죽음과 고통의 문제는 별개고 되고 만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이 땅에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의 자격으로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나 성경은 아담을 죄 없었던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고 가르친다(고전15:21, 22). 그러므로 첫 사람 아담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되어버리면 구원자 예수님의 의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관계 맺기의 비밀

몇해 전 부모성품훈련학교에서 수강하시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35살 된 싱글맘이라고 소개하면서 현재 남편은 있지만 없는 것처럼 살고 있고 5살 된 아들 하나 키우는 것을 삶의 낙으로 여기고 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2주 후면 자신의 남편이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별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는데 이 남편이 떠나기 전에 자신에게 ‘미안하다, 내가 당신의 인생에 큰 잘못을 했다’라는 사과를 정식으로 받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한번 남편과 잘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 마음을 나누어보라고 격려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 주 어머니의 발표는 우리의 기대와는 정 반대의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에게 ‘당신, 이제 떠나는 것은 좋은데 가기 전에 나한테 사과하고 가!’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남편은 ‘네? 너는 잘 했어?’하면서 큰 싸움을 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엄마에게 좋은나무성품학교의 관계 맺기 영역에서 사용하는 대화의 단계를 전해주었습니다. 첫째 감사하기, 둘째 용서 구하기, 셋째 요청하기, 넷째, 내 마음 표현하기라는 순서대로 남편과 다시 이야기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은 그 남편에게 감사할 것도 없고 용서를 구할 것도 없다고 완강하게 거절하더군요. 그러나 나는 엄마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라고 다시 권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이 엄마는 다시 남편과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당신하고 이렇게 걸으면 당신 신체가 커서 내 마음이 든든해져서 참 좋아요!’라고 말했더니 생전 처음으로 좋다는 소리를 아내에게서 들은 남편은 눈이 둥그렇게 변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런 말을 당신에게 한 번도 안했네요 미안해요!’라고 했습니다. 배운 대로 감사하기, 용서구하기를 나름대로 약하게 축소하여 사용한 것이지요.

그랬더니 이 남편, 갑자기 어쩔 줄 모르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지 사실 나 당신한테 잘한 것 없어 너무 미안해...’ 이 엄마는 다음요청하기를 하지 않았어도 소원대로 남편의 사과를 받아 낼 수 있었답니다.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기로 하고 미국으로 남편을 보내면서 이 여인은 부모성품훈련학교에 와서 기쁨을 얼굴을 하고 앞으로 나와 많은 부모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해 봄, 성품 지도자 인증과정을 개강한 첫날 한 여인이 찾아와 반갑게 인사하며 말합니다. ‘교수님, 저 기억나세요? 남편 미국간...’ 그러면서 자신의 그 다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미국으로 떠난 남편에게 부모성품학교를 마친 후의 느낌을 이렇게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그동안 우리 결혼의 비극이 모두 당신 탓이라고 여기며 당신을 원망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성품을 배워보니 내 성품이 모자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남편이 그 다음날로 보따리를 싸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아주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하여 잘 살게 되었다고 환한 얼굴로 이야기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니 이 모든 것이 성품학교 덕분인 것 같아서 자신도 성품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여 성품지도자과정을 등록하여 오게 되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정말 그때 제가 느꼈던 환희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수료식 때 나타난 그 남편을 보고 다시 한 번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수료를 축하하는 꽃다발을 들고 아들과 함께 온 남편, 너무 멋진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성품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품 좋은 사람은 많은 사람과 풍성하고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드러납니다. 풍성한 관계 맺기는 상대방의 존재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향한 원망과 비난은 이별의 전주곡이 될 뿐, 관계 맺기를 망치게 합니다. 행복한 관계를 통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관계 맺는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감사하고 용서를 구하고 요청하고 그 다음 내 마음을 표현하세요. 이것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관계 맺기의 비밀입니다.

‘종류대로’ 창조는 인간 정체성과 깊은 상관 낙태, 우생학, 동성애, 안락사도 진화론에 근거

모두 피와 살을 나눈 친족관계인 셈이다. 그래서 사람도 영장류에 속한 매우 독특하고 독특한 동물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진화는 과학적 사실일 수 없으며 역사적 사실도 아니라는 수많은 증거들이 존재한다. 성경은 이런 진화론의 주장과 반대로 맨 처음부터 각 식물과 동물들이 “종류대로” 창조되었으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종류대로”라는 표현에 담아 “하나님” 다음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류의 기원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기독교 문화가 가득 찼던 미국에서 진화론만을 가르치기 시작하지 않았던 낙태가 생겨났고, 이혼률이 두 배로 늘어났다. 전쟁, 학원 총기사건, 우생학이나 동성애나 안락사도 역시 진화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원에 반드시 진화론적인 요소가 직접적으로 스며들어 있다. 진화론은 사람의 정체성을 단순한 물질의 조합이며, 약육강식의 생존 본능과 적자생존의 개념을 삶의 토대로 확립해 주기 때문이다.

진화론의 가장 큰 영향은 아담의 죽음에 있다. 성경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알려준다. 그러나 진화론은 아담이 없었고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고전 15:45)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전 15:22)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기록한 바와 같이 (고전 15:45)

아담이 가짜라면 복음도 신앙도 가짜다.

만한 멸종된 유인원은 없다. 몇 가지 화석들이 사람의 조상이라고 주장된 적은 있지만 수십 년 후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다.

역사적 사실인 창조된 아담이 사라지면 인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성경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왜 사람에게만 모든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가? 죄는 무엇이며 타락은 무엇이며 왜 인류는 모두가 죄인인가? 창조자이신 예수는 왜 이 땅에 와서 생명을 바쳐야 했는가? 등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완전히 바뀌거나 변질되어 아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C. 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에서 인류의 기원에 대

손가락에 닿을 수 있는 손과 언어를 받을 수 있는 턱, 치아, 목, 이성적인 사고를 구체화하는 물리적 동작을 전부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한 뇌를 그 형태에 부여하셨습니다. 그 피조물은 인간이 되기 전 오랫동안 이런 상태로 존재했을 것입니다. ...이전 세대는 동물이 겪는 고통의 기원을 인간의 타락에서 찾았습니다. 아담의 반창조적인 반란으로 전 세계가 부패했다는 것이요. 인간이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동물들이 존재했다고 믿음만한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육식과 그에 수반된 모든 일들이 인류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잘못

미도 역할도 사라져 버린다. 그러나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었다(롬5:14). 성경의 아담이 가짜라면 구원자도 구원도 가짜가 되고, 신앙도 가짜가 되는 것이다.

바벨탑 이후 뿔뿔이 흩어진 모든 민족들은 진정한 족보를 잃어버렸다(눅3:38). 사람이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인 사실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수천년 동안 원래 조상대신 힘도 없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살아왔다. 선지자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인류에게 다시 전해진 진짜 역사는 복음이었다.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데 그 곳에 진화론이 등장하여 그 역사를 또 다시 지워버리고 있다. 미국의 기독교는 1960년 본격적인 진화론 교육과 함께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고 한국의 교회도 1973년부터의 본격적인 진화론 교육의 영향으로 채 꺾여 보지도 못하고 기울어가고 있다. 지금 동성애가 옹호되고 있는 국가들은 다른 나라에 오랫동안 성경을 전해주었던 나라들이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나 진화론과 타협한 가짜 아담이 있는 교회에는 궁극적인 답이 없다. 다시 가감 없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메일: mailforwscchoi@gmail.com

미주 갈멜산기도원 특별 기도성회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신학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www.galmelsan.or.kr / gstcenter98@gmail.com



장순직 목사
드림교회 담임
사단법인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한반도 회복 기도 운동연합 대표회장
CTS 운영이사
총회(합동) 부흥사회 증경회장

날짜 2014년 10월 23일(목) ~ 11월 6일(목)

※주일 성회는 없습니다

시간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문의 213.382.1450

장소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한인타운 내 카타리나와 8가 코너에 있습니다

2014년 조성근 목사 부흥성회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월 1일 송주영신 신약예배 1월 11일 9월 갈멜산기도원 신약예배 7:30 2월 2일 평화의 동산 기도회(평안북도) 13월 12일 신약예배(평안북도) 13월 12일 신약예배(평안북도)	3월 1일 8월 GST 32년 신약예배 10월 13일 갈멜산기도원 신약예배 17월 28일 LA 배너(신약예배) 21월 23일 LA 배너(신약예배) 21월 23일 LA 배너(신약예배)	1월 11일 8월 LA 배너(신약예배) 10월 13일 갈멜산기도원 신약예배 14월 14일 신약예배(신약예배) 17월 19일 19월 신약예배(신약예배) 23월 28일 신약예배(신약예배) 30일 신약예배(신약예배)	3월 1일 갈멜산기도원 신약예배 7월 9일 목동신학교(신약예배) 14월 17일 갈멜산기도원 신약예배 20월 23일 신약예배(신약예배) 24월 29일 LA 배너(신약예배)	1월 11일 LA 배너(신약예배) 2월 4일 새마을 신약예배(신약예배) 12월 15일 갈멜산기도원 신약예배 19월 22일 갈멜산기도원 신약예배 25월 신약예배(신약예배) 29월 신약예배(신약예배)	8월 11일 영주대학교(신약예배) 15월 주영교회(신약예배) 19월 19일 갈멜산기도원 신약예배 24월 30일 LA 배너(신약예배) 29월 29일 LA 배너(신약예배)	1월 11일 LA 배너(신약예배) 6월 LA 배너(신약예배) 14월 17일 갈멜산기도원 신약예배 18월 25일 신약예배(신약예배) 27일 신약예배(신약예배) 29월 31일 갈멜산기도원 신약예배	4월 7일 갈멜산기도원 신약예배 5월 평화의동산(신약예배) 11월 14일 GST 32년 신약예배 18월 20일 갈멜산기도원 신약예배 21월 30일 LA 배너(신약예배) 24월 24일 갈멜산기도원 신약예배 28월 남부주영교회(신약예배)	1월 11일 8월 LA 배너(신약예배) 8월 11일 갈멜산기도원 신약예배 13월 17일 갈멜산기도원 신약예배 13월 17일 갈멜산기도원 신약예배 21월 23일 LA 배너(신약예배) 24월 24일 갈멜산기도원 신약예배 28월 신약예배(신약예배)	5월 7일 포항신학교(신약예배) 13월 13일 신약예배(신약예배) 13월 13일 신약예배(신약예배) 18월 22일 신약예배(신약예배) 23월 31일 LA 배너(신약예배)	1월 11일 8월 LA 배너(신약예배) 10월 13일 갈멜산기도원 신약예배 18월 19일 영주대학교(신약예배) 24월 28일 신약예배(신약예배) 30일 신약예배(신약예배)	1월 11일 3월 영주교회(신약예배) 8월 11일 갈멜산기도원 신약예배 14월 21일 GST 미션(신약예배) 28월 신약예배(신약예배) 31일 갈멜산기도원 신약예배



목회서신

‘숨쉬기 운동, 시작!’



노상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쉽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숨을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a living being)이 되니라”(창2:7). 사람은 팔이나 다리가 부러져도, 몸속의 장기들이 망가져도, 혹은 혼수상태(coma)에서 깨어나지 못해도, 그가 숨을 쉴 수만 있다면 아직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흡이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호흡이 멈추면 그 사

람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사랑하는 가족도, 평상시에 좋아하던 음식도,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하던 스포츠카도-다 무의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육신의 호흡뿐만 아니라 영혼의 호흡도 생존하는데 필수조건입니다. 밥을 먹고 숨을 쉬므로 생명을 유지하듯이 크리스천은 영적인 양식을 말씀과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속해야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소리가 중단되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이

며, 그럴 때 우리의 헌신적인 봉사는 열매 없는 죽은 행위가 되고, 열정적인 배움조차도 우리를 영적으로는 죽여주고 지적으로만 탁월한 이론가로 만듭니다. 그리고 무력한 크리스천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은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매일 숨을 쉬듯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영적으로 살아있습니다. 숨이 부족하거나 숨을 더 잘 쉬기 위하여 숨쉬기 운동을 하듯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영적인 숨쉬기 운동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많은 크리스천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날마다

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이처럼 매일, 날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어떤 종교와도 구별되는 것은 그는 실존하시고 현존하시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내용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다음세대(Next Generation)를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세대 없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No Future without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킹덤 드림을 맘껏 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고, 실수도 많고, 유혹에 자주 넘어지기에 기도

로 감싸주어야 합니다. 고난이 닦쳐도 견뎌낼 수 있는 지구력과 인내심을 갖도록 격려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저들의 삶에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친구들, 사랑으로 지도하는 선생님들, 긍정적인 룸메이트들, 실력 있는 교수들, 잠재된 가능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멘토들, 목자의 심정을 가진 교역자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들이 한 세대로부터 신앙을 물려받고, 그다음 세대에 신앙의 바턴(the spiritual baton)을 넘겨줄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킹덤 마인드(Kingdom mind)를 가지고 이 지역에서 임팩트(impact)를 끼치는 신앙의 거목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귀중한 복음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가을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교에

서 새롭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진정성 있는 신앙인,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숨을 깊게 쉽시다. 영적인 숨쉬기 운동을 합시다. 숨쉬기 운동이 모든 운동의 기초이고, 숨 쉬기를 잘해야 건강하듯이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기도를 해야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짧게 해도 괜찮습니다. 잘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해야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7:11).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코에 그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며 우리가 영적인 숨을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영혼의 호흡, 즉 기도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숨쉬기 운동합시다. 시작!

미기총 주관 전국 기도투어 실시

남가주는 11/11/14 다민족기도회 실시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미기총 대표회장 한기홍 목사) 주관으로 전국기도투어가 실시된다.

먼저 오는 10월 29일(수)부터 31일(금) 저녁 7시에 ‘도시와 미국의 부흥을 위한 동남부지역 연합기도회’가 ‘이 땅 고쳐주소서’라는 주제로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에서 실시된다.

이어 오는 11월 11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남가주 애너하임에 위치한 혼다센터에서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영적부흥과 각성을 위한 다민족 연합기도회로 열린다. 이 연합기도회는 지난 2011년 11월11일 로즈보울 구장에서 열린 다민족기도회의 연장선상으로 마련됐다.

‘A Line in the Sand’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도회의 한인 기도인도 시간은 오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다. 미기총 대표회장 한기홍 목사는 “타락해져가는 미국사회 가운데 한인교회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운을 떼며, “한인교회



11.11.14 다민족기도회 등을 포함한 미기총 주최 전국기도투어에 대한 설명회가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가 중심이 되서 이 땅을 고치고 살리는 기도운동을 전개해나고자 한다. 그것이 우리 한인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강조했다.

11/11/14 다민족연합기도회가 열리는 혼다센터는 2만명을 수용하는 센터이며 NCAA 농구대회가 이곳에서 열리고 애너하임 덕스 아이스하키 팀의 홈구장으로 사용되

고 있다. 강순영 자마 대표는 “이번 연합기도회를 위해 기도회가 열리기 전인 11월 9일에 남가주의 한인교회들은 광고를 통해 연합기도회 참여를 독려해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제28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저지교협 신임회장에 이병준 목사 제28회 정기총회, 부회장 이의철 목사/김진수 장로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제28회 정기총회가 지난 13일 오후 6시 뉴저지행복한교회(담임 이병준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28대 △신임회장에 이병준 목사(행복한교회)가 선출됐으며 △목사부회장에 이의철 목사(제일성결교회) △평신도 부회장에 김진수 장로(프린스턴신학교) △총무부 이준기 목사(하나교회) △서기부 엄순희 목사 △회계부 유재도 목사가 각각 임원으로 조직됐다.

신임회장 이병준 목사는 1년 중기준사업 이외 “250여개 교회마다 이단 정보 제공을 통해 이단 대처에

노력할 것이다. 또한 무인가 신학교를 통해 배출된 자칭 목사들을 정화할 것이다. 현재 뉴저지 한인교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너무나 많이 끼치고 있다”며 이단 척결과 본이 되지 못하는 목회자들 바르게 인도할 계획을 밝혔다.

이병준 목사는 “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이동할 때 이명증서를 뉴저지 교협에서 발급하는 캠페인을 벌일 것이다. 법적 효력보다 회원교회 간 바른 질서를 잡자는 것”이라며 특히, “1년 회기동안 뉴저지 동포사회에 뉴욕교협이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찾아 협력과 봉사할 것이다. 또한

타민족들과 연계해 매년 열리는 호산나 성회를 연합성회로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또한 “뉴저지교협은 목사들만이 회원이 아니다. 평신도들 중 장로들을 이사회로 구성해 상생할 수 있는 뉴저지교협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무처리에서 27회기 총무 박근재 목사는 행사보고에서 각 교단 총무모임, 이민목회 특강, EM사역자 여성 수련회, 증경회장단 초청 오찬, 설교클리닉, 세월호 참사 회복 기도회, 어린이 찬양제, 목회자 여성 수련회, 사모세미나, 선교 세미나, 교협 기금 골프대회, 소망 음악회, 북미 원주민 선교대회 등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9가지의 다양한 사업을 보고했다.

회계 박영주 목사는 27회기동안 수입 70,777.37달러 지출 68,794.59달러, 잔액 1,982,79달러로 보고해 전년도 보다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음을 강조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병준 목사 사회로 장동신 목사(오늘의교회) 대표기도, 이종구 장로(일그림교회) 성경봉독, 뉴저지장로성가단 특송, 이우용 목사(순복음뉴저지중앙교회) “연합 감사합니다”(엡 2:19-22) 설교, 박영주 목사(은혜선교회) 헌금기도, 박근재 목사(시나브로교회) 광고, 유재도 목사(땅끝교회)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정리: 유원정 기자)



미성대학교 주최 성결포럼이 서울신대 총장 유석성 박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열렸다

‘본회퍼의 평화사상과 동아시아의 평화’ 주제

제29회 성결포럼, 강사 유석성 서울신대 총장

미성대학교(총장 류종길 박사)가 주최한 제29회 성결포럼이 ‘본회퍼의 평화사상과 동아시아의 평화’ 주제로 13일 오전 10시30분 미성대 채플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인 유석성 박사가 강사로 나서 강의했다.

유석성 박사는 “본회퍼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산 사람”이라 소개했다. 유 박사는 “본회퍼의 신앙관은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본회퍼는 철저하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기독교인이 어떤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시금석같은 자”라 언급하며, “그의 신학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이었다. 그는 제자직(도)에 대해 강조했다.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 고난은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하기에 기쁨으로 승화가 된다. 그는 신앙과 행동이 하

나로 일치되는 삶을 살았고 새로운 신학을 만들도록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유 박사는 또한 “죄를 알려면 먼저 인식해야 한다. 평화를 알려면 잘못된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고, “군국주의

를 지향하는 아베정권 일본의 미래는 없다. 독일의 경우 2차 대전이후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일본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통해 큰 고통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군국주의로 돌아가 독도 영유권 주장,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평화헌법 개정추진, 성노예(위안부) 문제 부인 등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일본이 전 세계에서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를 추구했던 본회퍼에게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한중일 3국은 본회퍼의 평화사상에서 큰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회퍼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책임적인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과 교회의 참 모습을 가르쳐주었고, 사회참여신학의 선구자로서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보여주었다”고 결론을 맺었다.

유 박사의 발제에 이어 이상명 박사(미주장신대학교 총장)가 논찬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제22차 목양장로 컨퍼런스 성황

미서부 4번째... 강사 최홍준 홍민기 고현권 김명섭 목사

제22차 목양장로 컨퍼런스가 7일과 8일 양일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웨딩채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미서부에서는 4번째로 열린 목양장로컨퍼런스는 최홍준 목사(호산나교회 원로, 국제목양사역원 원장), 홍민기 목사(호산나교회 담임), 고현권 목사(베델한인교회), 김명섭 목사(호산나교회, 국제목양사역원

총괄)가 강사로 나서 강의했다. 첫날 오프닝 강의를 최홍준 목사가 ‘시대적 사명으로 미래를 보는 지도자’라는 주제로 강의했으며, 고현권 목사가 ‘교회사로 본 장로직의 본질 회복’, 그리고 홍민기 목사가 ‘다음세대를 위한 목양사역’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둘째날 강의는 김명섭 목사가 ‘목양장로사역의 실제’, 최홍준 목사가



미성대 ATS준회원 가입 감사예배 및 후원의 밤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이날 찬양을 한 전국여전도연합회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

미성대학교 ATS 준회원 가입

감사예배 및 후원의 밤...2018년 정회원 목표

미성대학교(미주성결대학교, 총장 류종길 목사) ATS 준회원 가입 감사예배 및 후원의 밤이 12일 오후 4시 본교 채플실에서 성황리에 개

최했다. 류종길 총장의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미성대 비전위원 오서택 목사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 미

주성결교회 부총회장 최대현 장로가 기도를, 본교 총무이사 이경원 목사(오렌지중앙교회)가 성경봉독했으며, 전국여전도연합회 찬양대(지휘 윌덕영 목사)가 합창했다.

이어 유석성 목사(서울신학대학교 총장)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마5:9)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유 박사는 “오늘은 미성의 역사 전환점이자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다. 우리는 세계를 향해 복음의 말씀전하고 해야 할 사명이 있다. 미주지역은 미성이 인물을 키우고 학교가 발전돼 미주지역 성결교회가 더 크게 발전되고 확장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허경삼 목사(미주성결교회 전 총회장)의 축도로 마친 뒤 이어 시작된 2부 비전나눔 시간은 이상복 목사(미성대 전 이사장)가 기도, 본교 교무처장 윤석길 목사가 학교현황을 소개했으며, 재학생 황희은 학생과 김윤숙 학생의 학생간증이 있은 후, 미주성결교회 총회장 김병근 목사와 OMS 한국대표 태수진 선교사, 언더우드대학교 총장 리처드슨 박사가 축사했으며 미주성결교회 전 총회장 박수복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또한 축하연주의 시간을 가졌는데, 오서택 목사와 이종희 사모, 소프라노 이수정 씨와 바리톤 류정상 씨가 특송을, 색소폰 연주자 켈빈박 교수(베네디크타대학교)가 특별연주를 했다.

한편 미주성결대학교는 2014년도 가을학기부터 학교명을 미성대학교로 변경해 호칭하고 있으며 오는 2018년 ATS 정회원 학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제22차(미주4차) 목양장로사역 컨퍼런스가 은혜한인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제자훈련과 목양장로사역’과 ‘목사의 독특한 위치와 권위’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만백성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

뉴욕만백성교회 이종범 담임목사 취임예배가 10월 19일(주) 오후 5시 동 교회당(1250 Rockland Ave, St)에서 열린다. 이종범 목사는 뉴욕만백성교회 4대 담임이다.
▲문의: (718)701-4953

뉴욕전도협의회 준비기도회

뉴욕전도협의회(회장 허윤준 목사)가 주최하는 뉴욕연합전도부 흥성회(10월 31일-11월 2일)를 앞두고 준비기도회를 갖는다. 제 2차 준비기도회는 10월 17일(금) 오전 10시30분 뉴욕새힘교회(담임 박태규 목사), 3차 준비기도회는 28일(화) 오전 10시30분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
▲문의: (718)637-1470

제5회 아가페열방찬양제

뉴저지 아가페장로교회(담임 김남수 목사, 90 Cooper Ave Iselin)가 11월 2일(주) 오후 5시 제5회 아가페열방찬양제를 갖는다. 이 찬양제는 매년 11월 첫째 주에 열리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찬양제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따라 지으심을 입은 목적 그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리기 위해 준비된 찬양제다.
또한 이 찬양제를 통하여 한인교회 간, 타인종 교회 간에 교류협력의 장을 열어 협력사역의 기반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초청해 한국의 전통문화와 얼을 알리고 지역 커뮤니티와 한국교회 간의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목적으로 시작했다.

출연진만 연인원 200여명에 달하며 매년 12개팀 이상이 참여해 왔다. 금년에는 뉴욕 오페라계에 널리 알려진 오페라 가수 겸 찬양사역자 Jeeminn Lee와 G20 정상회의에서 공연한 가야금 연주자 서라미, 세븐해브, 러커스대학 댄스미션팀 REACH, 뮤지컬찬양사역팀 B4A, 중장년 20인조 엘림크리스찬밴드, 유스미션댄스 팀 AGI, 뉴저지밀알선교단 장애우 찬양사역자 이원석, 갈보리교회 예빛중창단과 주사랑중창단, 그리고 그레이스커뮤니티채플 찬양밴드팀과 중부뉴저지 Sayrewood Church 찬양밴드팀이 출연한다.
▲문의: (732)213-5856 이창호 집사



패밀리터치 13주년 기념 후원만찬에서 정정숙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바울성서원 로마서강의 전반부 시작

11월 17일까지, 강사 김동수 교수

바울성서원(St Paul Academy of Theology)이 주최하는 로마서 강의 전반부가 김동수 교수(나약칼리지)를 강사로 11월 17일(월)까지 계속된다. 또 겨울방학 후에는 후반부가 3월 2일(월)부터 10주간 진행된다.
강의 장소는 필그림하우스(256 Broad Ave. 2floor Palisades Park, NJ) 시간은 매주 월요일 오후 8-10시.

뉴저지교협이 후원하는 바울성서원은 지난 9월 15일부터 시작돼 뉴욕 뉴저지 일대 교역자들이 참여했다.
자세한 문외는 뉴저지밀알선교단 강원호 목사(201-638-5148 miju92@gmail.com)나 시나브로교회 박근재 목사(201-647-7766 mission4jsc@hotmail.com)에게 하면 된다.

“은총의 40년, 비전의 40년”

퀸즈장로교회 설립40주년 맞아 찬양축제 열어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5일과 12일 2주간에 걸쳐 '40주년 기념 함께하는 찬양축제'를 열었다.

교회에 속한 19개 전도회 중 5일에는 사라전도회를 비롯해 10개 전도회가 출연했으며 12일에는 루디아전도회를 비롯한 9개 전도회가 출연했다. 5일에는 지난 40년 동안 퀸즈장로교회와 '주님이 함께 하신 은총의 40년'에 감사하는 찬양을 올렸으며 12일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 비전의 40년'을 찬양으로 선포했다.

전도회위원회 위원장 김원도 장로의 사회로 열린 5일 김성국 목사는 "하나님을 찬미하며"(행2:47)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퀸즈장로교회에 부여하신 은혜를 우리가 찬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름다운 찬양, 함께 하는 찬양, 축복의 찬양, 주의 영광을 찬양으로 올리는 축제를 마련



퀸즈장로교회 찬양축제 대상 마리아전도회원들과 장영춘 목사부부, 김성국 목사부부가 함께 기념촬영 했다.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또 "은 백성에게 칭송 듣는 교회가 되자"며, "그러할 때 지난 4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구원 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퀸즈장로교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축제는 글로리아선교중앙단의 '주의 기도'란 찬양으로 막이 올랐

다. 이어 사라전도회 '예수님이 좋아요', 마르다전도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론전도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안나전도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모세전도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을 각각 불렀다.

김지현·김태훈 남성듀엣의 특송에 이어 브리스가전도회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전도회 '지금까지 지내 온 것', 한나전도회 '나 주의 믿음 갖고', 다비다전도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갈렙전도회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란 찬양으로 믿음은 고백하고 청년부의 특송으



고 방지일 목사 추모예배에서 이용걸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인격을 산같이 덕을 바다같이”

뉴욕서도 고 방지일 목사 추모예배

고 방지일 목사 추모예배가 지난 14일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렸다. "격산덕해(格山德海), 인격을 산같이 덕을 바다같이" 주제로 열린 추모예배는 뉴욕교협과 유가족 일동 주최로 뉴욕목사회, 뉴저지교협, 뉴저지목사회가 후원했다.

예배는 조문휘 목사 인도로 기도 양준길 목사, 성경봉독 장경혜 목사, 찬양 뉴욕뉴저지목사회합창단, 말씀 이용걸 목사, 약력 이양 의 장로, 회고 조진모 목사, 조사 김정국 목사, 조가 양군식 장로, 유족 인사 방지각 목사, 광고 이재덕 목사, 축도 박희소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용걸 목사(필라델피아장로교회 담임)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창25:7-11)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방지일 목사는 마치 모세처럼 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지난 주일에도 설교를 하신 영원한 현역

이신 방 목사님을 생각하면 은혜를 받고 부럽고 감사했다"고 말하며 "방 목사님은 복음전도에 대한 열정과 한국교회에 대한 사랑, 많은 목회자들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 그분의 일생을 보며 해프타임을 잘 보내면서 닳아서 없어지는 방 목사님의 좌우명을 따라가자"고 말했다.

이용걸 목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는 방 목사의 연수를 다 채우셨다"며,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고인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목사의 뒤를 따라 승리하는 자들이 되자"고 말했다.

조진모 목사는 "고인이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방지일 목사의 영향은 지대하고 다양하게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기 힘들다며 세 단어인 복음, 소명, 으로 표현했다. [관련기사 12면] (유원정 기자)



패밀리터치 13주년 기념 후원만찬에서 정정숙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패밀리터치 13주년 기념 후원 만찬

“정신건강과 가정의 역할” 주제 특강

가정사역기관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 13주년 기념 후원 만찬이 지난 3일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렸다. 한인 1세와 2세 280여명이 참석해 전준호 변호사(Matthew Jeon, Esq.)의 사회로 패밀리터치의 지난 한 해의 사역을 돌아보고 후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강사로 초청된 정신과 의사 황필주 박사가 "정신건강과 가정의 역할"이라는 주제 하에 영어와 한국어로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바리톤 임성규 씨의 축하공연에 이어, 참석자들 모두 'Home Sweet Home'을 부르며 가정의 의미를 되새겼다.
원장 정정숙 박사는 "가정의 불

화는 2세라고 예외가 아니며, 보다 행복한 가정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10년 동안 이사로 봉사한 민혜정 이사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민 이사는 "가정이 어려울 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관이 있어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저지 레오니아에 위치한 가정사역기관인 패밀리터치는 뉴욕과 달라스에 지부가 있으며, 가정의 행복을 위해 상담과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할 경우 (201)242-4422 또는 familytouchusa@gmail.com으로 연락하면 된다. (기시제공: 패밀리터치)



주님의 초청에 함께 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세상의 어부는 산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귀한 직분을 받았으니,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오늘도 전도지를 가방에 챙기고 집을 나섭니다. (뉴욕장로교회 김옥희 권사) ”

2014년 LA 동부지역 제 54기 C.W.M. 전도훈련

“ CWM 전도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어떡할 뻔했을까? 이 전도지가 없었다면 어떡할 뻔 했을까? 전도훈련을 통해 지금도 늘 전도현장에 있는 분들 중에 얘기 (조화자 권사, 감옥지 성도) ”

주 강사 :



조복섭 사모 이은희 목사

일 시 : 10월 20(월), 21(화), 22(수) 저녁 7:20 ~ 9:40

장 소 : 글로발 선교 교회 (909-396-4441)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대 상 : 교역자, 사모, 신학생, 평신도 모든 분

수강료 : 50불(교재, 전도지, 기타 자료 포함)

4명 단체 등록 수강료 50% 할인

연락처 : 562-480-6975, 714-371-6406, 310-749-7522, boksupcho@gmail.com

주최 : C.W.M.(Christ Witness Mission)

후원 : 글로발 선교 교회



신동희 전도사 등 5명 안수 받아

KAPC 남가주노회 목사임직예배 성황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남가주노회(KAPC 노회장 안병권 목사)는 12일(토) 오후 6시 대흥장로교회(담임 권영국 목사)에서 목사임직예배를 드리고 신동희 전도사 등 5명이 목사를 탄생시켰다.

노회서기 김민섭 목사의 사회로 열린 예배는 부노회장 양효직 목사

가 기도했으며, 대흥장로교회 연합 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안병권 목사가 '항기로운 사명자'(레:1:1-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안병권 목사는 "목사임직을 받는 것은 마치 번제로 드러지는 제물과 같은 것이다. 제물로 드러진 후의 제물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다. 마

찬가지로 안수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제물의 개념과 같은 것이다. 즉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겠다는 의식이 임직식이다"라고 말했다.

안 목사는 "오늘 임직 받은 5명의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KAPC남가주노회 주최 목사임직예배를 마친후 안수받은 목회자들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임직식을 마치고 임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 앞줄 중앙이 김현인 목사부부.



나성영락교회에서 제8회 한마음나눔잔치가 성황리에 열렸다.

'사람의 소중함을 회복하는 섬김의 장터'

제8회 나성영락교회 한마음 나눔잔치 성황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제8회 한마음 나눔 잔치를 '사람의 소중함을 회복하는 섬김의 장터'라는 주제로 11일과 12일 양일간 교육관 주차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자리에는 아동복을 비롯해 남녀 의류와 가방, 모자, 골프용품, 잡화, 액세서리가 판매됐으며 불고기덮밥, 떡볶이, 해물파전, 샌드위치 등 각종 먹거리가 축제 참가자들에게 마련됐다.

김경진 목사는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다. 이분들과 함께 울면서 고통을 나누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한마음 나눔 잔치를 통해 함께 선을 나눌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마음 나눔잔치는 한인 기부자들과 교인들의 기부 물건을 판매한 수익금과 먹거리 판매 수익금 등 전액을 비영리 단체와 지역 커뮤니티에 기부해 한인 교계의 대표적인 커뮤니티 돕기 행사다.

LA 시정부와 시의원 등의 정부기

관과 여러 한인 단체들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 모인 수익금 전액은 링컨하이츠 지역 일대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헌신하는 비영리 단체들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남가주든든한교회 임직식, 최환경 장로 등 총 6명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 목사)는 12일 오후 3시 장로·안수집사·권사 임직식을 갖고 최환경 장로, 방진광 최금규 안수집사, 곽양순 홍선미 최금순 권사 등 총 6명을 새로운 일꾼으로 세웠다.

김현인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임직 감사예배는 이완구 장로 기도에 이어 차병학 목사(KAPC 로스앤젤레스노회 노회장)가 설교했다.

차 목사는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마21:1-9)는 제목으로 "나귀 새끼의 존재의 의미가 준귀하신 예수님을 등에 태우는 일이었던 것처럼 임직자들의 존재의 의미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게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므로 자

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김과 희생의 자세로 순종하면 하나님 이 역사하신다. 오늘 세워진 일꾼들은 교회 이름처럼 마지막 때에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축복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임직자들과 교우들에게 각각 사약한 뒤 본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된 것을 공포했다.

이날 이병희 목사는 임직자들을 향해, 박신욱 목사는 교우들을 향해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며 황은영 목사의 축사와 본 교회 문광식 집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최환경 목사의 축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이성자 기자)

한인타운 다목적연장자센터 서비스 강화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보조기관 '캘피스' 출범

한인타운 다목적 연장자센터(소장 캐서린문)가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한인들에게 더욱 확대된 커버드 캘리포니아 무료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연장자센터는 8일 오전 11시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가입 보조기관으로 지정받고 5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센터는 11월부터 시작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2차 가입기간 동안 한인들에게 더욱 확대

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2차 가입기간 중 신규 가입자는 물론 옵션 변경 등의 이유로 재가입자 또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작년에만 1만2000명의 가입을 돕는 등 지역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한 연장자센터에 대한 지원을 늘리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연장자센터는 이전에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하려면 본인이 직접 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서비스(한국어)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교회 등 단체가 요청하면 출장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또한 지원금을 얻은 만큼 정보 안내나 가입 신청 서비스 면에서 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연장자센터측은 밝혔다.

한편 연장자센터는 이날 2차 가입에 앞서 커뮤니티 건강관련 프로젝트의 일환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가입 보조기관 캘피스(CalPeace) 출범식을 갖고 오는 1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캘피스는 2015년도 신규 가입 및 커버드 캘리포니아 홍보와 교육을 담당하는 공인기관으로 올해부터는 한인 보험가입자들이 직접 센터를 방문하는 것 외에도 팩스, 이메일, 우편, 전



한인타운다목적연장자센터가 주최한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및 '캘피스' 출범에 대한 기자회견이 마친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화를 통해 보험가입 및 갱신, 커버드 캘리포니아 소속 병원과 의사와의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캐서린문 소장은 "이번에 받은 전체 기금 80%가 공인상담사나 케이스 매니저 등 직업 창출에 쓰일 것"이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3배 이상인 30명의 내

비게이터와 공인상담사, 콜센터 직원을 확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캘피스에서는 11월 15일부터 한 달간 신규가입, 12월 15일 이후부터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213)739-7877 (박준호 기자)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서부(CA)교회안내</h2>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티미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일목회(화-금): 오전 5:30 수요예배: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1:30 주일예배: 오후 4:00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남가주사랑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7:30	동문교회 담임목사 :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7:30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전도예배: 오전 9:30 3부 평일예배: 오전 11:00 4부 전도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포를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드림교회 담임목사 :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일 1부예배: 오전 9:30 평일 2부예배: 오전 11:30 평일 3부예배: 오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미주양광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 장세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남가주삼상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현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아)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비전(8:18 새벽기도: 오전 6:30(화-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금))	새신앙교회 담임목사 : 변윤선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새생명선교회 담임목사 : 김만수 영아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금) 수요예배: 오후 8:00(화-토) 금요예배: 오후 8:00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안다목장교회 담임목사 :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아)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금요예배: 저녁 7: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아)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찬양예배: 오후 6:0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6:00(토) 은혜새벽기도회: 365일 24시간 오전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금요예배: 오후 8:00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금요예배: 오후 8:00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교단총회 참관 결과 10년치 들여다보니...

한국교회 주요 교단 총회에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총회 내부의 소통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했다. 연령과 세대, 지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총회 구조 및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적 책임’ 논의 늘었지만 ‘불통’은 여전

◇사립학교법 개정 찬반 논의에서 ‘목회대물림 금지법’까지=국민일보가 200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발간된 교단총회공동대책위원회(교총공대위)의 총회참관활동 보고서(2006년 제외)를 분석한 결과,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논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4년 한국 사회의 핫이슈였던 ‘사립학교법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은 그해 9월 주요 교단 총회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대안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합동, 교신을 비롯해 기독교대안감

리회(기감) 등 주요 교단들은 “(미션스쿨의) 설립 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성명서와 국보법 폐지 반대를 골자로 한 시국선언문을 내놨다.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2007년)와 아이티 대지진(2010년), 동일본 대지진(2011) 등 국내외 재난 구호와 지원에 대한 논의도 빠지지 않았다.

최근 3년 동안에는 목회대물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2012년 기감 총회에서 전격 통과된 목회대물림 금지법을 기폭제로 이듬해부터 올해까지 4-5개 교단이 관련 세칙을 담은 헌의안을 통과시키거나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목

회자 남세 문제도 비슷하다. 3년 전 일부 교단에서 논의되기 시작해 지난해와 올해에는 4-5개 교단이 향후 1년간 연구 기간을 두기로 하거나 자진납세 권장 방안을 통과시켰다. 예방통합은 2013년 목회자 윤리지침을 제정했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는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지난달 총회 기간에 ‘고난 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주요 예배’를 드렸다.

◇선거제도는 개선, ‘불통’ 총회는 여전=2010년 이후 주요 교단의 임원선거 제도가 대폭 강화됐다. 선거운동원 수가 제한되고, 선거기간만 활동도 전개됐다. 일부

는 자체 선관위를 두고 선거공영제를 도입했다. 교총공대위 관계자는 8일 “사회 선거법 수준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미흡하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단헌법 만능주의’와 총회 재판국에 대한 비판은 거세졌다. ‘개교회 분쟁이 발생하거나 재판 요구가 있을 경우, 교단 내 힘이나 파벌, 온정주의에 따른 불리한 판결이 많아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교총공대위의 지적은 거의 매년 이어졌다.

평신도의 총회 참여를 확대하고 총회 현장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며, 총대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총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2004년 이후 ‘단골’ 지적사항이다. 여성 및 청년층의 참여와 인권(言權) 확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 등 ‘소통’ 총회에 대한 요구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영원한 헌역’ 방지일 목사 103세로 소천



‘영원한 헌역’으로 불리던 국내 최고령 목사인 방지일(영등포교회원로) 목사가 10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성북구 인촌로 고대안암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103세.

방 목사는 이날 초가지도 북한선교회를 위한 기도의 행사에 참석해 축도를 하는 등 외부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9일 오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9시간 여만에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받았다. 장례 일정은 현재 유가족과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예장통합) 총회 측과 협의 중이다.

14일 방지일 목사 장례예배

초교과 목회자·성도 1000여명 참석

일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는 노(老) 목사의 한 세기 삶에 한국교회는 머리 숙여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그의 마지막을 추모하는 자리는 슬픔과 탄식이 아니라 끝없는 복음전파와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위한 다짐으로 가득했다.

14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는 지난 10일 103세를 일기로 소천한 고방지일 목사의 장례예배가 열렸다. 한국기독교회장으로 드러진 예배에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1000여명의 목회자와 성도가 모여 신앙과 언행의 일치와 실천한 방 목사의 삶을 되새겼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경증총회장 립인식 노랑진교회 원로목사는 ‘본받으라’를 제목으로 한 설교에서 “방 목사는 ‘장수’를 연호와 경외함으로 받은 복으로 여기시며 고령이 될수록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힘껏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하셨다”며 “이로써 만 70세에 은퇴하면 마땅히 쉬어야 한다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단일한 태도에 경증을 울렸다”고 밝혔다. 또 “인종과 계급, 격식 등을 따지지 않고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처럼 방 목사는 수십 년간 중국선교를 하고 교파를 초월해 목회자들에게 성경강화와 목회지도 등을 하는 등 ‘초월목회’의 본을 보이셨다”고 말했다. 립 목사는 “한국교회가 방 목사의 사역 정신을 계승한다면 교회 간 화합도, 세계선교도, 남북의 평화통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생전 방 목사와 공유했던 추억을 나눴다. 송실대 이사장인 박준순 총신교회 원로목사는 “방 목사는 만날 때마다 ‘목사는 한국교회를 마음에 품고 겸손하고 겸손한 삶, 옳지 않은 것과 타협하지 않는 삶, 바른 신학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용기를 주셨던 목사님이 그리고 보고 싶다”고 추모했다. 장로회신학대 주선에 명예교수의 “어느 날 방 목사님께 총명을 유지하는 방법을 여쭙더니 매일 아침 눈을 뜨시자마자 성경 100구절을 외우신다고 했다”며 “평생 삶의 초점을 하늘에 두고 애복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으니 참으로 복된 삶을 사신 것”이라고 말했다.

방 목사가 주창한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이르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교회연합 전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는 “방 목사님은 생전에 교회나 교단의 힘겨루기는 깨끗하게 사라져야 하며 교회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맘모니즘을 버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며 “각 교단장과 성도들이 모인 이 자리가 방 목사의 당부를 실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장례예배는 각 교단장을 중심으로 한 공동장례위원 182명, 원로목회자를 주축으로 한 고문 80명, 각 교단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공동집행원 202명 등 총 464명이 참여한 공동장례위원회가 주최했다.

장례예배 후에는 장지인 강원도 춘천 증리 효신가족묘지에서 유가족과 방 목사가 시무했던 서울 영등포교회 성도 등 300여명이 참석해 하관예배를 드렸다. 예방통합 영등포도회장 김상룡 목사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셨던 방 목사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길 기원한다”고 설교했다. 방 목사의 아들 방선주 박사는 “아버님을 불러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장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자손들과 한국교회가 아버님이 남기신 신앙의 유산을 따르고 지킬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총신대 재단이사회 “총회 결의 준수”

“규정개정은 어려워...규정과 정관 혼동”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99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지난 10월 8명의 총신대 재단이사회 참석한 가운데 정관개정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열린 예방합동 99회 총회는 70세 정년제 및 재단이사회 임기와 관련, “10월 10일까지 모든 재단이사회는 정관개정 동의서를 제출하고 10월 30일까지 총신대 규정을 개정된 뒤 서면으로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재단이사회가 작성한 동의서는 ‘99회 총회의 총신대 재단이사 임기

관련 결의와 개방이사 관련 결의를 존중하며, 결의가 총회 헌법과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법적인 판단을 받아 합법적 범위 안에서 총회 결의를 존중해 정관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단이사회는 그러나 규정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기승 이사장은 “30일까지 개정하라고 한 총신대 규정은 학사일정 등에 관한 것으로 이사가 아닌 교직원에게 개정 권한이 있다”면서 “총회 때 총대들이 규정과 정관의 차이를 혼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군선교 돌파구 ‘대대급 교회 활성화’

제14회 군선교 신학심포지엄

“안타깝게도 현재 군(軍) 내에서는 장병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은 한때 ‘선교의 황금어장’으로 일컬어졌지만 이제 그물이 너무나 낡고 상해 있습니다.”

육군 제15사단 군종참모를 맡고 있는 김동연 목사는 7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 곽선희 목사)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개최한 ‘제14회 군 선교 신학심포지

엄’에서 “군종목사로서 참으로 민망하다”며 군 선교의 어려움을 이같이 밝혔다.

김 목사는 군 선교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대대급 교회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는 “장골 부대’로 불리는 대대급 교회의 사역이 중요한 이유는 장병들이 21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실제 공간이 대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군에 대한 신뢰도 추락으로 사

랑하는 아들들 군에 보낸 부모의 심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대급 교회의 활성화를 통해 군 선교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사고예방을 통해 군에 기여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대급 교회의 활성화 방안으로 군 선교 교역자들의 보임 안정, 부대 지휘관의 신앙 전력과 의지와 세심한 관심, 신실한 군종병과 기독장병의 헌신, 지친 장병 돌봐주기, 기구 간부 및 군인 가족들의 봉사 권장, 신병교대 세례자의 추적 관리 및 양육, 대대 지휘부의 좋은 유대관계 형성, 구성원 간 네트워크 등을 제시했다. 예배 후 성경암송대회, 설교말씀을 활용한 빙고게임 등

다양한 복음(선교)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 이종윤(서울교회 원로) 목사는 기조강연에서 “군대사회의 특수목회라는 이유로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편하게 따를 수 있는 변두리식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린다면 병영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군선교연합회는 이날 ‘제11회 군선교 신학연구논문공모 당선작 시상식’을 갖고 신종훈 전도사와 안남기 군종목사, 이금순 목사를 수상자로 선정해 상금과 상장을 전달했다.

고색중앙교회 목사를 늘렸다. 반면 중부연회에서는 김상현 부광교회 목사가 758표를 획득해 141표를 얻은 김성복 설편교회 목사를 큰 표차로 이겼다.

가장 많은 후보(4명)가 나선 충북 연회에서는 김은성 송학교회 목사가 당선됐다. 중앙연회에서는 최재화 명암교회 목사, 동부연회에서는 김한구 양양교회 목사가 각각 선출됐다. 남부연회와 충청연회의 새 감독으로는 각각 안승철 대전중앙교회 목사와 이성현 중흥교회 목사가 뽑혔다.

삼남연회 선거에서는 단독 입후보한 김진홍 시온중앙교회 목사가

무난하게 당선됐다. 기감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가 1명밖에 없을 경우 과반수 찬성을 받으면 된다. 김 목사는 삼남연회 유권자 428명 중 284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267표(94%)를 얻었다.

감독선거 투표는 각 연회가 지정한 교회에서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됐다. 선거권자 7720명 가운데 6465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83.7%를 기록했다. 새로 뽑힌 감독들은 오는 30~31일 서울 강남구 광림교회에서 열리는 기감 총회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기감, 10개 연회 감독 새로 선출

서울연회 여우훈 목사 등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는 제31회 총회 감독선거를 통해 서울연회 등 10개 연회 감독을 새로 뽑았다고 8일 밝혔다. 감독은 각 연회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서울연회 감독선거에서는 352표를 획득한 여우훈 서강교회 목사가 341표를 얻은 강승진 실로암교회 목사를 간발의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여 목사는 “현재로서는 열심

히 하겠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서울연회 부흥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머지 연회에서도 박병의 승부가 펼쳐졌다. 서울남연회 선거에서는 김연규 신흥교회 목사가 241표를 얻어 224표를 획득한 이기우 감람교회 목사를 꺾었다. 경기연회 선거에선 홍성국 평촌교회 목사가 438표를 받아 401표를 얻은 서인석

대한 주문도 잊지 않았다. 박 교수는 “루터가 살던 시대처럼 국가의 힘을 빌려 종교개혁을 이룰 수는 없다”며 “21세기의 개혁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는 대중적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개혁이란 루터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뤄진다”며 “21세기 한국의 루터가 나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복협 부회장인 전병금(강남교회) 목사는 “한국교회는 심각한 부패의 수렁에 빠져 있다”며 자정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정운동의 예로는 초대교회 중 하나인 고린도교회를 들었다. 그는 “고린도교회가 파벌싸움, 교리논쟁, 도덕적 타락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바울은 편지를 통해 교회가 새로워질길 권면했고 교회는 이를 받아들여 자정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 자정능력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목회자부터 자기 갱신해야’=발표회에서는 한국교회의 개혁과제로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

연합의 통합 등도 제시됐다. 목회자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목회자 개혁이 없으며 한국교회의 개혁도 요원하다는 이유에서다.

한복협 신학위원장인 김영한 송실대 명예교수는 “목회자들의 자기 갱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회자의 설교는 강단에서의 설교에 그쳐선 안 된다. 삶이 따르지 않는 설교는 핼리 소리에 불과하다”며 “목회자는 명예욕과 권력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복협 중앙위원장인 정일영 전 총신대 총장도 개혁과제 중 하나로 목회자들의 그릇된 목회관 타파를 꼽았다. 그는 “수직 성장에 치중하는 목회관을 포기해야 한다”며 “그리스도 안에서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목회관으로 방향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일갈했다.

정 전 총장은 한국교회의 예배 모습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교회와 사람이 즐겁게 해주는 ‘쇼’와 같은 인간 중심의 예배를 연출하고 있다”며 “이것은 성찬의 의의를 망각한 심각한 왜곡이며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국교회 개혁할 21세기 루터 절실”

한복협 월례 발표회... 개혁 주문 목소리 북돋

“한국교회가 과거 천주교(가톨릭)가 빠졌던 오류를 답습하고 있다.” “목회자들의 자기 갱신이 절실하다.”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수명을 다한 종교집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한복협)가 10일 서울 강남구 화평교회에서 개최한 월례 발표회에서는 한국교회의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종교개혁과 한국교회 개혁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발표회는 독일 신학자 마르틴 루터(1483-1546)의 종교개혁 500주년(2017년)을 앞두고 한국교회의 좌표를 점검하기 위한 행사였다. 발표자로 나선 이들은 한국교회의 개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1세기 한국의 루터 나와야”=박명수 서울신학대 교수는 한국교회의 위기가 중세 시대 온갖 추문과 부정으로 얼룩졌던 가톨릭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교회와 가톨릭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진단하고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든 요소로 ‘물질욕’ ‘권력욕’ ‘성욕’ 등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종교개혁이 시작된 계기는 교황청이 성 베드로성당을 지으며 부족한 물질(돈)을 채우기 위해 면죄부를 팔고 성직을 매매한 것인데, 현재 한국교회도 교회 건축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 “한국교회는 연합기관의 대표와 총

회장 자리를 놓고 싸우는데, 이는 중세 교회가 벼슬을 놓고 싸운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톨릭이나 불교와 달리) 기독교는 성직자의 결혼을 허용했는데도 이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마리아를 ‘권력욕’ ‘성욕’ 등을 언급했다. 성직자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성직자 중심주의’ 등은 잘못된 것이다. 박 교수는 “우리는 기독교가 가진 장점을 생 각하며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교회 개혁의 구체적 방안에

(4면에서 계속)
주님을 따르는 무라기 아닌 길가에 앉아 믿음으로 도움을 청하는 바디메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를 쓰십니다. 바디

매오를 통해 사람들은 믿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믿음을 있는 자를 통해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 전쟁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3)우리로 기도하면 됩니다.
믿어지는 사람이 소원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연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믿어지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고 가슴에 담은 소원은 부르짖음으로 표현됩니다.
기회를 좇아 기도해야 합니다. 바디매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시력은 잃었으니 청력은 누구보다 예민했던 그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구걸하던 목소리가 이제는 기도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를 놓

치고 싶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마침내 주님은 지나치지 않으시고 응답 하셨습니다. 절박한 처지에서 없는 기회도 만들어야 하는데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도전을 넘어 기도해야 합니다. 바디매오의 부르짖음에 많은 사람이 귀졌습니다. 기도의 난관입니다. 응답을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만나게

되는 장애물입니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바디매오는 주님을 기대하며 시작한 기도를 멈출 마음이 없었습니다. 빛이 없는 암흑 속에서도 그의 기도의 시선은 오직 주님께 있었습 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던 그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목적은

많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이고자 함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방인들의 중언부언과도 달라야 합니다.
바디매오는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도 달라질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소원을 품고 갈망하며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곧 우리가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크리스천 리더십 (5)

- 느헤미야의 리더십(3) 철저하게 계획하는 리더(느헤미야2:1-9)

번역 및 요약: 최운동 목사 (감사한인교회)

리더의 중요성: E. M. Bounds 는 그의 책 "기도를 통한 능력"에서 말한다. "사람은 교회를 발전시키고 확장하고 효율성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 새로운 계획, 새로운 조직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있다."

리더의 첫 번째 하는 일이 기도 하는 것이라면 그 다음의 일은 잘 계획하는 것이다. 느헤미야 2:1-9 절은 느헤미야가 숙달된 계획의 전문가인 것을 보여준다. 그가 했던 6가지를 살펴본다. 먼저 리더가 계획해야 하는 세 가지의 이유를 먼저 알아보자.

1. 왜 계획해야 하는가?

1. 하나님은 계획하신다.

리더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시간 관리는 기회를 선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그것은 바로 계획을 요하는 것이다. 계획하는 것은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계획없이 삶을 산다는 것은 좋지 못한 청지기다.

II. 리더는 어떻게 계획하는가?

1. 생각을 철저히 한다(1절, "나 산월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관한 생각을 처음 가졌을 때와 그가 실제로 왕에게 그의 계획을 말했던 때는 4개월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었다. 그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는 기도하면서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는가?"고 말할 때 그는 어떻게 왕에게

3. 목표를 설정하라(5절)

5절에서, "나는 왕에게 답하였다. 만일 종이 왕에게 호의를 입는다면 나로...". 느헤미야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가 가진 목표를 말하고 있다. 계획을 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분명히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어떤 목표가 없다면 당신은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신에게 3가지의 질문을 하라.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무엇 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가지기 원하는가? 그것들이 목표를 설정할 때 당신이 질문해야 할 것들이다. 목표를 설정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목표를 너무 낮게 세우고 그것을 너무 빠르게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든 조금씩 점차적으로 하여 확실하게 만들라. 그리고 점차 큰 목표를 세우고 큰 계획을 세우

는 통행권을... 그래서 지장없이 여행할 수 있는 여행자가 필요합니다"고 요청한다. 계획을 세우면서 질문하라: 나를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문제가 무엇인가?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가? 만일 어떤 것이 잘못되어 간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관리자(manager)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지만 리더(leader)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한다.

6. 비용을 미리 계산한다(8절)

계획을 하고 목표를 실행하는 데는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것이 가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8절, "또 왕실 숲을 맡아 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방지일 칼럼 (60)

"본대로 들은 대로"

감기약은 없다

이번에 여러 곳으로 다는 중 여러분의 의사를 만나서 여러 가지로 대화하는 중에 감기치료에 대하여 한 분 의사가 말하기를 감기는 약을 먹어도 7일 걸리고 안 먹어도 한 주일 걸리면 낫는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감기 걸리면 쉬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다. 그 군성이 다양하다. 그 군성을 연구하여 그 살균의 약을 발견하려면 벌써 그 감기는 낫는다는 말이다. 감기로 열이 있으니 해열제를 먹으면 해열은 되나 감기 균은 우리 폐운의 몸에서 잘 살게 되기에 몸에선 열을 내서 그 균을 살균하는데 열을 내리게 하면 감기 균은 좋아한다는 말도 들었다. 평소시에 못 듣던 말을 듣기도 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채 우리에게서 적당한 균을 대항하게 하여 주셔서 감기 균이 침입하면 그 균이 못살게 열이 오르게 되어있다고 한다. 이 열만 내리는 약을 복용하면 열은 내리나 그 균은 살기에 적당하여진다고 하는 말이다. 쉬면서 자체의 저항력을 길러주는 것이 유일의 방법이라 한다.

근자에 비타민류가 다양하게 미국서 선물용으로 많이들 사오는데, 전에는 영양섭취가 전혀 안되어 비타민이 부족할 때에는 그 필요함이 있었으나 근자에는 우리 식생활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고로 밖에서 들어가는 비타민 종류가 거의 필요 없다 한다. 먹는 음식이 모든 비타민 공급에 족하게 되었다 함이다. 비타민을 더 섭취하면 필요 용량 외에는 다 배설되는 것뿐이라는 말이다. 지나치게 건강유아라 보건제라는 것이 섭취하는 음식물도 충분하더라도 섭취할 필요 없는 것을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니 우리네의 건강에 대한 신경이 과민하여지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

기타 복용약에 있어서도 많은 실함을 가져 어느 병에 어떤 약이 발명되어 처방으로 투약함을 받는데 그 병에는 실로 유익하나 다른 면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에 어떤 약은 부작용 보고가 있으면 판매금지 하는 일이 미국에 많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몸을 창조하심에 완벽하게 건강이 유지되도록 하셨다. 그의 창조하신대로 먹고 자며 쉬는 시간을 가지면 건강은 자연히 유지되게 되어있는데 몸의 섭생을 자신이 잘못하여 잘 때에 자지 않고 TV 같은데 매달려 밤잠을 덜 잔다. 외식을 많이 하는 사람은 폭음 폭식하는데서 병을 얻는다. 적당하게 내 직에 충실하면 내 몸에 적당한 운동은 되게 되어있다. 가족적 분위기를 좋게 하여 내외간의 유쾌한 삶 자녀들을 기르는 그 감각에서 엔돌핀이 체내에 적당하게 분비되어 건강에 좋게 되어있는데 이리든 저우가 되어질 때 이리저리 무리가 중첩되어 건강에 손해를 가져오게 된다.

나는 이런 대화에서 목회자로서 자신의 영력이 부족해서인가, 교회가 그리 생동력이 없어진다. 모이는데 교회 본연의 역사가 부진하여지면 나팔을 부는 양 흥분 위주의 소위 부흥회를 가진다. 지나치게 감성적 집회를 가져 흥분이 고조되어 아멘 할렐루야를 설교 말마다 그 대답으로 하도록 강요한다. 유도한다. 심지어 그렇게 명령까지 한다.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강조하여 두려게 하기도 하고, 그 사람만을 강조하여 안심시키기도 하는 등의 악한 신앙인에게 있을 일인데 이런 면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믿음의 감기를 대항하는 성경의 영력보다 감성적 흥분으로 필요 없는 투약을 하는 셈이라, 열심은 있어 보이나 이상 없는 그 열에 다른 면으로 병상에 들어가는 정형을 생각있는 사람은 알리라 생각한다. 이단이 그런 데서 발생하기도 함을 본다. 목회자는 성경에 근거하여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 묵상하 자신이 광범에 들어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으면 거기 영이 새충전을 받게 되리라, 교인들이 영양에 주림이 없진다. 흐뭇하게 먹일 것이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함을 부탁받았으니 다른 흥분 조성자를 청하여 며칠 야단하고 난 다음에 교회는 더한 병에 걸리는 것을 본다. 목회자 자신의 영력 충전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영의 감기에도 약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두신 말씀을 꾸준히 먹음으로 건강형 영양섭취를 함이 좋다.

(1997년, 4권)

[편집자] 방지일 목사님께서서는 지난 14일 새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 본지는 목사님의 소천을 추모하며 칼럼을 계속 게재합니다. 독자여러분의 지속적인 애독을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전 가진 사람에게 자원을 공급해준다

철저히 생각, 기회준비, 목표설정, 마감결정, 문제예측

예레미야 29:11,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고전 14:33,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나 오직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다. 만일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면 우리도 계획하는 것이 옳다.

2. 하나님은 계획하라고 명령하신다.

고전 14:40,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잠언 4:26, "너가 하는 일을 주의 길에 계획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잠언 16:9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3. 계획은 선한 청지기(ship)이다.

에베소서 5:15-17,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약합니다. 그러므로 어

대답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느헤미야는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요청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워드 헨드릭스 교수는 말한다, "진지한 생각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다." 리더는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잠언 13:16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생각한다"고 말한다. 계획하지 않으면 실패를 계획하는 꼴이 된다. 계획을 철저히 해야 한다.

2. 기회를 준비하라(1절)

1절,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이 있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그는 왕에게 그의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이미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느헤미야는 두려웠지만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려 가겠다고 허락을 요청하였다.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 리더는 그 문을 열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삶의 모든 것은 기회로 가득 차 있다.

4. 마감시일deadline을 정해야 한다(6절)

6절에, "왕이 왕비와 더불어 그 옆에서 그에게 묻는다, '너는 얼마 동안이나 가 있겠는가? 언제 돌아올 예정인가?' 그래서 나는 말했다, '그것은 왕이 나를 보내실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기간을 정했다. 어떤 목표이든 마감기한이 있어야 한다. 만일 당신의 목표가 마감기한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목표가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언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질문하라, "목표를 이루는데 얼마가 걸리는가?"

5. 일어날 문제도 미리 예측해야 한다(7절)

그는 이미 갈 수 있는 허락을 요청했고 그는 이제 통행권도 요청하고 있다. 7절, "만일 그것이 왕을 기쁘게 하신다면 나는..." 이라곤 해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800에서 1000마일의 여행이었다. 그는 수많은 지역을 거쳐야 했다. 당시에는 자유롭게 여행하는 시대가 아니었다. 당신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가야만 했다. 느헤미야는, "나는 왕께서 저에게 내가 여행할 수

성전 옆에 있는 성채 문쪽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물품 리스트를 말했는데 세 가지씩 세울 수 있도록 나무를 주시도록 요청하고 있다: 나는 성문의 기둥을 세우기 원합니다. 그 다음 나는 성벽을 쌓기 위한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나는 내 집을 짓기 위한 나무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그의 생애동안 어떤 건물을 지어본 적이 없다. 그는 단지 슬관원이었다. 그러나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정확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다. 왜 그랬는가? 그는 계획했기 때문이다.

리더십 포인트: 하나님은 비전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실 때 자원을 공급해준다. 느헤미야는 고향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 그는 민감했고 그 일을 자원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 가졌던 짐은 비전으로 바뀌어졌다. 지속적인 기도가 짐을 하나의 비전으로 바꾸어놓는 것이다. 사람들이 비전을 가질 때 주의 해서 보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못해주시실 일은 없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718)358-6225, Fax: (718)762-468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hsemanc.org		뉴욕갯세미네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nygethsemanc.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http://sungdochurch.org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45-16 162 St., Flushing, NY 11358 chungtae@yaho.com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1(Fax),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387-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org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Website: nyjbc.org Tel: (718)279-2757, 2758, Fax: (718)279-1823 252-3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FM(영)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 (718)639-3021, Fax: (718)507-6376 210-10 Horace Harding Expwy, Bayside NY 11364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예배: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런징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1:30 창립기념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us.org Tel: (516)333-1757, 목회관: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45 Tel: (718)482-7788, Cell: (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		에벤에셀성도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9:00 Tel: (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us/		에사람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주미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 1부예배: 오전 12:30 주일 2부예배: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5:00 영일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		킨즈헌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org		킨즈헌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kapm@gmail.com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미아클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www.pccv.org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n Pizar,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5:00 주일 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18AS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주일학교: 오전 10:00 유. 초. 중. 고등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정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기도회: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6:00 (1, 2, 3, 부 스페인어 설교) Tel: (595)211-574-985 E-mail: hanikm@hanmail.net Cervantes NC, 1001,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wai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인도네시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일교차가 없는 날씨 가운데 사역하면서 아침, 저녁 고국의 가을바람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뜨거웠던 지난여름, 사역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합과 부족함을 넘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동역자 분들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뉴스를 통해 접하는 시리아와 이라크 땅에서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더 무릎으로 나가게 됩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인도네시아와 선교사 가정을 위한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7월 인도네시아에서는 대통령 선거 결과 친서민 개혁 정책을 표방했던 조코위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204년부터 시행된 대통령 직선제 이후 최초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빈민으로 태어나 기업가로 자수성가한 뒤 자카르타 주지사를 거쳐 당선된 조코위 당선자는 정치에 입문한지 9년 만에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민족, 종교, 문화가 얽혀 있어 과거 수차례 정치, 민족 관련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관료주의 개혁, 부정부패 척결, 친서민, 친기업을 주장하는 새로운 인도네시아 대통령

을 통해 정치와 사회가 안정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 사역 현장에서는 하나님 나라확장을 위한 성경연장교육 국제컨퍼런스를 통해서 사역의 현재 좌표와 목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송교회인 신일교회 청년부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에서의 성경캠프와 코리아안 파티는 동역하고 있는 현지 교회와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보태어준 귀한 사역의 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단기 의료선교팀을 통해서 다양한 진료과목과 섬김을 통해서 현지 인도네시아 영혼들이 감사와 눈물의 고백을 경험하는 가슴 뭉클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 중학생은 의사인 부모님을 따라 선교지를 방문하기 몇 주 전부터 선교지 체험훈련을 위해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끄고, 옷을 입고 잠자는 것을 훈련하고 선교지로 오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선교사의 가슴이 아려움을 느끼며, 영혼을 사랑하고 인도네시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이미 받으셨음을 확신하기도 했습니다. 자격 없는 저에게, 한 순간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는 삶이 갈 수 없는 선교사를 위로하고 도와주시기 위해 단기사역으로 동역해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 김태호 선교사 가정에서는 현민이가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지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주실 것을 믿고 부모님의 사역에 많은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없는 적도

지역 날씨에 힘들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육신의 작은 질병들이 찾아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지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환경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 기도제목 ■

1-미국과 연합국가들의 IS 공격과 공습 소식에 세계 최대 이슬람 인구가 있는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이 소식에 동요하지 않게 하시고, 무슬림 강경 원리주의자들이 득세하지 않도록

2-10월에 예정된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영적 분위기가 일어나도록

3-하나님의 때에 땅을 마련하여 학교사역과 현지사역자 재훈련 및 파송을 위한 사역이 준비될 수 있도록

4-비자연장 프로세스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순적비 비자가 연장되고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5-10월6일 예정된 현지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예비된 현지 동역자들 만날 수 있도록

6-신학연장교육(TE)사역과 성경연장교육(BE) 사역에 주의 은혜와 기쁨 부으심이 있도록.

7-성경연장 교육과 신학연장교육 세미나를 위한 예비된 장소를 순적비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8-사랑하는 두 아들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평생을 함께 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의 그늘 아래에서 김태호 장우희 현준 현민 선교사 올림

연락처 : the088@hanmail.net

헝가리 부다페스트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시며, 평안하신지요?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감사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기도와 사랑, 희생의 헌물로, 선교후원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으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마24:45)으로 신실히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

1)매일 아침마다 동네 한바퀴를 기도하며 돕니다. (Walking Prayer) 건강하게 사역 감당하는 것, 감사합니다. 혈압약 대신으로 하나님께 약속하며 시작했는데 벌써 3년이 넘었고, 제 혈압은 정상이 되었습니다. 얼마전 편도선과 감기몸살로 한 주간 무척 힘들었지만 회복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집시 슬림가 "회쉬 우짜"의 어린이 주일예배를 새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지난 9월 21일에는 헝가리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침개(뽕리전타) 파티"를 예배 후 가졌습니다. 많은 부침개에 초코가루, 치즈, 복숭아 잼을 발라 돌돌 마는 것인데, 섬김이 클라라가 60장을 만들어왔고, 아내 서 선교사가 치킨스프를 끓였는데 동이 날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2. 소식

1)"피테르" 전도사가 초등학교 성경교사로 취직이 되어 갔습니다. 10년간 저희와 동역하였는데, 잠시 저희 교회에 못 나오게 됐지만 계속 동역자로 함께 할 것입니다.

2)헝가리에서 태어난 한국인 고등학생, "크리스티나(하은)"와 "에스테르(하민)"가 보조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최&원 집사님의 자녀인데, 한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후 와서 헝가리어로 돕습니다. 할렐루야!

3)새 예배당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공되었지만 아직 보일러 설비가 끝나지 않았고 준공검사가 안났습니다. 한편 처마에 비가 새서 벽에 금이 가고

곰팡이가 생겼고, 화장실에 물이 내려가지 않아,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건축자의 책임회피로 속이 많이 상하고 이종으로 비용이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3. 기도제목

1)"쇼&빌라그샤(소금과빛)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 영성훈련이 활발하게 하소서!

2)피테르처럼 헌신된 헝가리인 동역자를 보내주소서!

3)"거리의 교회" 월(남부역), 월(허타르 역), 화(남부역)에서 영육간 양식을 통해 노숙자들이 구원 받고 새롭게 하소서!



4)섬김이들: 클라라, 주저, 벌리꺼, 안드라쉬, 벤체, 이바, 크리스티나, 에스테르...를 축복해주옵소서!

5)"회쉬 거리" 집시 어린이들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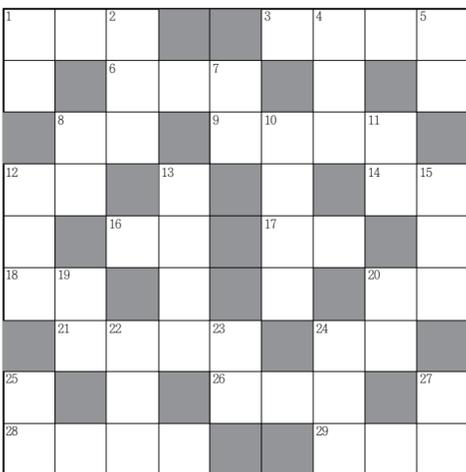
6)"킨 거리" 집시 가정교회를 통해, 그들이 정직하고 성실한 자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7)저희 둘째딸들 "엘리아(만 25살, 탈봇신대원졸)"가 '군목 예비자(체플린 캔디데이트)'로 장교훈련(10/24일까지) 중인데, 그후 사역할 교회와, 또 평생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사랑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God bless you!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 흥부선교사네, 김홍근&서명희 드림.

십자말 • Cross Word (56)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가로 푸는 열쇠>

1. 문의 양편에 세운 기둥(겔43:8).
3. 잇사갈 지파에 있는 성읍(수19:19).
6. 가려서 뵈고...(시119:30).
8. 네 계절의 하나. 무르익는...(잠20:4).
9. 바울이 세 번째로 전도하려 멀리 떠남.
12. 아셀 자손 헤벨의 아들이다(대상7:32).
14. 성 마다. 여러 성(눅13:22).
16. 춤을 춤(삿21:21)
17. 큰 바람(은1:4).
18. 갓 자손(대상5:12).
20. 예루살렘 성전의 동편 문(렘3:10).
21. 하나님의 속성.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시다.
24. 어떤 물체의 입구가 열려지는 곳(단3:26).
26. 갓의 성읍으로 견고한 요새이다(삿8:11).
28. 슬기롭지 못한(고전15:36).
29. 스바와 함께 향재료, 보석, 황금 등을 가지고 두로와 통상하였다(겔27:22).

<세로 푸는 열쇠>

1. 대답을 얻기 위한 물음(행26:3).
2. 사람이 사는 집음...(렘9:19).
4. 너희 용들과 OOO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시148:7).
5. 숨이 거의 끊일 때(히11:22).
7. 예수님의 족보 중 한 사람이다(눅3:28).
8. 에서의 손자, 엘리바스의 아들(창36:16).
10. 나아가는 순번에 따라(눅1:8).
11.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OO에서 다니시니(요10:23).
12.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레위 사람(느7:43).
13.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15. 고을을 드나드는 문(사9:35).
19. 안에 있는 대궐(겔41:3).
20. 오래 되지 않은 동안(사29:17).
22. 땅의 경계를 표하는 돌(잠22:28).
23. 업신여기어 욕보임(막12:4).
24. 베냐민의 셋째 아들(대상8:1).
25. 돌 가랑(겔13:19).
27. 애투하고 안타까운 정을 억누려 참고자 함을 뜻하는 말(잠13:24).

십자말 정답



15년간 성지순례를 인도해 온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I.A.M)의 KNOW-HOW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전문여행사(SINCE 1986년)의 풍부한 경험이 합쳐진 명품 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팀 대모집

<2015년봄 성지순례 일정>

- 2015. 2.16~2.24 - 이스라엘 전 일정 순례 (8박9일) \$2,299
- 2015. 2.16~2.26 - 이스라엘+요르단3개국(10박11일) \$2,699
- 2015. 3. 2~3. 9 - 터키+소아시아 일정(7박8일) \$1,999
- 2015. 3. 2~3.12 - 터키, 그리스 2개국(10박11일) \$2,699
- 2015. 3. 2~3.14 - 터키, 그리스, 로마 3개국(12박13일) \$3,199

(※ 위외가격은, 15명 이상 LA 출발 기준이며, 금년 9월~10월 동독시 가능한 가격입니다. 비행기 요금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차별화된 명품 성지순례, 옵션이 없는 순수한 성지순례, 기독교 역사적, 선교적 관점으로 진행되는 순례, 교회들이 원하는 맞춤형 순례, 젊은이들을 위한 단기순례 및 정담, 한국 성지(선교지)순례 등등..

* 특별혜택사항 : 항공, 호텔, 버스, 음식(한식포함), 편안하고 여유있는 스케줄, 현지 한국 가이드의 질적 우위와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경쟁력

* 성지순례 및 항공권 문의전화번호: 714-351-0124
* 성지순례 프로젝트 팀장: Paul 최 목사(15년간 성지순례 인도)
* E-mail : choigh1115@gmail.com

* 모든 항공권 가격 최저 보장!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건너편)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물문교는 과연 기독교인가?

물문교에 대해 신앙의 혼돈이 생기신분 물문교에 관해 알고원하시는 분

상담 및 소그룹 클래스, 세미나

문의 정 일 국 목사

- 전 화: 714-833-2345
- 이메일: miranjung7@gmail.com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71)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정신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오늘은 부부문제들 중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는 크게 볼 때 "가정폭력"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이슈이며, 그 단어의 정의상 부부간, 부모자녀간, 그리고 세대간 폭력 등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포괄하는 것이지만, 오늘은 부부 간의 폭력, 그중에서도 남편의 부인에 대한 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는 가정폭력의 주된 이슈가 "때 맞는 아내"라는 문구로 대변될 만큼, 가정폭력의 현상들 중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이기 때문입니다.(부모자녀간, 세대간의 폭력문제는 해당사안들을 다룰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밝힌 바대로 부부간의 폭력은(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

이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마땅해 보입니다(물론 이혼, 불화, 외도 등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민사법에 저촉되는 결과들이 있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이에 초하여 자신의 몸과 무기 등을 사용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물리적인 폭력(성폭력 포함)이 아니라 보다 폭 넓게 언어, 표정, 말투 등으로 행하는 위협, 공갈, 모멸 등 역효과 남편의 폭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폭력의 사례들은 실제로 더욱 더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교회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남편의 폭력문제에 대해 그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돌보며 교육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한인교회는 사실 그 어느 문제에도 보다 덜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덜 살피고 덜 개입해온 것이 사실일

지 숨기고 그저 혼자서 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혹은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보복이 두려워서, 이혼을 당할까 겁이 나서(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이혼을 꺼림에도 불구하고), 혹은 자신을 구태, 또한 간혹 폭행한 바로 그 남편을 보호하고자 혼자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적인 교회의 사건해석과 오히려 희생자를 더욱 몰아가는 분위기로 인해 한인교회 및 목회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남편보다 저급한 존재이므로 남편이 무슨 잘못을 해도 따르고 감내해야 한다" 등의 거부적 논리로 가해 남편들에게 귀책의 연유를 제공해주거나, "맞을 만 하니 맞았겠지, 잘못했으니 때렸겠지

남편폭력은 여성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가정 깨져 자녀 상처로 대물림 초래, 교회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개별적인 현상이면서 동시에 불화, 외도, 이혼 등 다른 부부문제들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여타의 부부문제들보다 폭력의 문제는 더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불화, 외도, 이혼 등의 문제가 경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에 의한 아내의 폭력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타인에 의한 폭력도 끔찍하거나 하물며, 함께 자녀를 낳고 서로를 의지하고 지탱하며 사랑하며 든든하게 지켜주던, 그리고 그러해야 마땅한 남편에 의한 폭력이야 얼마나 더 아프고 괴롭고 끔찍하겠습니까(이에 "성폭력"이 동반되는 경우라면 아마 최악의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 몸에 생긴 육체적 상처가 치유되었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결코 치유되기 힘든 깊은 정서적인 상처를 주며, 자아존재감과 자아존중감의 완전한 소멸을 가져올 만큼 한 여성의 인생에 큰 타격을 줍니다. 굴욕감, 모멸감, 억울함, 분노 등의 단어로는 다 설명할 수조차 없이, 이는 한 여성의 전 존재를 흔들고 삶 자체가 무의미하고 목적이 없다고 여겨게 만듭니다. 이에 법이 남편의 폭력을 범죄로, 특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차원

입니다. 한인사회에서 남편의 폭력은 그 정도가 심각하고 그 빈도가 빈번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피해 한인여성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큰 상처를 받아 그들에게 일생을 통한 트라우마가 생기고, 자녀들의 건강한 미래가 위협당하고, 다음 세대에서도 대물림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한인교회의 교육이 반드시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남편의 아내 폭력을 사적인 가정사라 여기는 분위기가 실제해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매우 예민한 문제이기에도 조심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를 사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요 또한 교회 전체의 문제로 받아 안고야 합니다. 문제의 존재와 실상 및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며, 준비된 자세로 폭력의 문제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인교회들이 폭력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여코자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아이러니하게도 피해 아내들 당사자들이 자신이 당한 폭력을 숨긴다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교회의 지체들이나 목사님께 털어놓지도 못한 채, 그

관한 때렸겠다" 등의 논리로 피해 여성들에게 그릇된 죄책감을 지워주다 보면 어떤 피해여성도 아무리 자신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목회자를 찾는 신뢰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영민한 살피고 현명한 판단을 통해 상담전문가와 연결시켜주는 일도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남편의 폭력은 엄연한 범죄임을 우리 교회인 지체들과 두리박 지체들 모두에게 명확히 가르치고, 사전 및 사후 교육을 통해 엄격하게 훈육하고 선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자기 잘못해서 맞고 산다는 의식을 깨뜨리고 옳지 않은 관한 죄책감을 건네고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존재"임을 각인시키는 가르침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남편이 가정의 머리된다"는 말씀을 곡해하여 여성이 자신의 소유물이라거나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자신보다 낮은 존재, 자기 맘대로 해도 되는 존재라고 여기는 남성우월적인 의식을 교화하는 교육 또한 동반 실시해야 하며,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 교회를 사랑하신 그 분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계속)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시19:7)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축복은 더욱 엄청난 다. 먼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십니다. 히브리적 개념으로 "영혼"은 우리 전인격을 말하는 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의지, 마음, 지식, 육신까지 모두 새롭게 회복시키십니다. "소성케 하신다"는 뜻은 잃은 것을 찾고 죽은 것을 살리고 망한 것을 흥하게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revival"을 말하는데 시들고 병든 내 전인격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소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어 우리의 전인격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이 말씀으로 완전합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감사하며 더욱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시19:7)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모든 문제는 지혜롭지 못해 죄를 짓고 지혜롭지 못해 불행한 길을 가는데도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된 사람은 말과 행동이 지혜로워지기 때문에는 죄에서 떠나고 승리의 길 행복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하다"라는 뜻은 "드든하다, 잡되다, 견실하다"는 뜻으로서, 한마디로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확실한 가치(Trustworthy)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하셨는데 "우둔한 자"라는 뜻은 히브리말로 "폐터"라는 말로 "열어놓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마음을 내맡기고 말씀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시19:8)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정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예좌람"인데 "옳다, 바르다, 곧다"라는 뜻입니다. 이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교훈하시는 말씀은 오늘 그 말씀을 교훈으로 받는 마음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어떠한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으로 먼저 영혼이 소성되고 지혜가 넘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마음

을 바르고 곧게 하심으로써 결국 바른 마음은 즐거움을 줍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교훈으로 받으면 하늘의 즐거움은 우리의 속사람을 만족시키고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얻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정직한 교훈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그리고 평생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시19:8)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이 밝게 됩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오류가 없는 깨끗함을 말합니다. 말씀에는 오류가 없고 사람의 어떠한 죄악도 이 말씀을 오염시킬 수 없습니다. 이 오류가 없고 깨끗한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십니다. 마치 훌륭한 안과사처럼 슬픔과 죄로 어두워진 눈을 맑고 밝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모든 어두움을 밝히십니다. 진정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이 신묘막측하고 우리에게 주시

는 축복이 큰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밝은 눈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눈을 밝혀서 우리를 믿음의 눈을 갖게 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며 경고로 받으며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에게게는 상이 큼니다.

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시19:9)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 영원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읽고 행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나의 전인격에 나타나는 현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입니다. 즉,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욱 경건하고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경건함과 말씀을 사랑하여 지키려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호

와를 경외하는 도가 정결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깨끗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함은 영원까지 이릅니다. 더러운 것은 사람을 부패하게 하나 정결한 자는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순수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써 영원토록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시19:9-14)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해 다 의롭습니다. 여기서 "규례"는 "하나님의 심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모두 공정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변명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에 나타난 여호와의 심판 그리고 역사가 증거하는 그분의 심판은 진리이며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분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많은 정근보

다 사모하며 겸손하게 이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키는 분에게는 상이 큰 것입니다. 오늘 가는 발걸음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생을 마감할 때에도 더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위해 주님이 특별 계시의 축복이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분은 참으로 복이 넘치는 분입니다. 아멘!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5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광명동 340-1(131-23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성가대회: 오후 9:00 Tel. (062)523-9419, Fax. (062)522-4834 500-170 경교광역시 북구 중앙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흥인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9671(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9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동3동 330-5, (134-830)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월요일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253-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석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3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9-0998, Fax. 9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3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313-26호	수영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2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등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랑구 신사동 137 번지	시온사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2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사택.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91, Fax.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화곡동로 17길 29(삼일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Tel. (82)2-786-6579, 사택. (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십자가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영로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성가대회: 오후 9:30 주일4부예배: 오후 4: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성북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신앙의 본질회복을 통한 미래목회 제언 (5)

-예배가 무너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다



전 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X. 온전한 헌금 생활의 회복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후에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영적인 예배의 훌륭한 모형이었다. 이 제사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는데, 밖으로는 제사에 관한 모든 법도를 준수하는 것이었고 안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정성스러운 제물이어야 하며 제물을 바치는 헌제자의 마음과 제물의 정성스러움이 일치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심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도 함께 받으시는 것이다. 바울은 정기적인 매주 헌금을 권장하였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야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

하고 있고 십일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앞선자로 세워진다고 할 때, 그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할 것이다. 교회는 분명한 헌금생활을 강조해야 된다. 헌금생활도 훈련이기에, 훈련이 되어지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가운데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는 가족 전체의 이름으로 헌금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기 자기의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공수로 나아오지 않도록 각자의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가르쳐

온전한 헌금생활은 온전한 교회 헌신으로 이어져 모든 목회적 제언은 교회와 예배회복에 초점 맞춰

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전 16:1-2). 그것은 구약시대에 실행된 바와 같이 하나님에게 헌금한 것이 아니라 모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연보였으나,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며"(고후 9:7)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13) 때문에,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던"(고후 8:5) 마게도니아 교회의 모범을 따라 예배의 한 형식으로 인정되었다(고후 9:7). 교회의 직분자의 세움에서부터 헌금생활은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된다. 헌금생활이 온전한 사람들을 보면, 대개 교회를 향한 헌신의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된다. 헌금생활도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둘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때, 그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는 상식이나 계산에 의해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존재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삶의 규범인 성경말씀에서 나온 것이다. 성경은 십일조와 헌금생활을 명령하고 있다. 신명기 14:29절이나 말라기 3:10절을 보면 십일조의 의무를 말

야 한다. 신앙의 결론은 헌신이다. 헌신의 삶의 분명한 표시가 또한 헌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회복될 때, 특별히 십일조 신앙이 회복될 때 교회는 주님 앞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이다.

맺음말

오늘날은, 교회중심, 예배중심을 언급하기에 이 시대는 너무나 멀리와 있음을 본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회복자 예수 그리스도, 회복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할 때, 처음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는다. 교회중심의 예배회복을 위한 신앙생활의 열 가지 내용을 목회적 제언이라는 소견으로 적어보았다. 문제교회라고 할 때, 무엇이 문제인가? 결국 교회와 예배에 대한 관점들이 회복되어야 한다.

앞선 열 가지의 모든 목회적 제언들은 교회와 예배의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면, 성도자신과 가정과 가문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른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베푸시는 축복이 분명하게 허락 될 것이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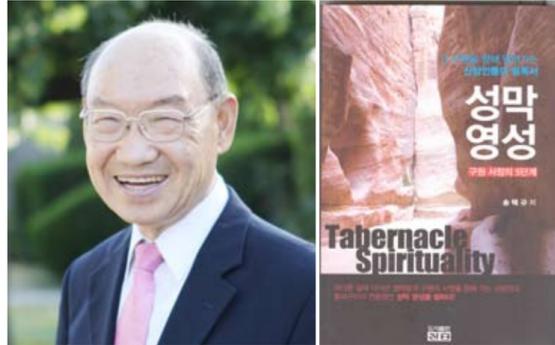
본사방문

“성막영성” 저자 송택규 목사

“구원의 진정한 교리가 성막에 숨어있다”

‘성막영성’의 저자이며 성막세미나를 인도하는 사역자로 알려져 있는 송택규 목사가 최근 본사를 방문해 자신의 저서를 보이며 성막 영성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기독교는 가장 진리적이고 기독교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왜 지금 여러 가지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대안이 없지요. 저는 그 대안을 구원교리 문제로 봅니다”라고 입을 여



송택규 목사, 저서 “성막영성”

작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송 목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광야는 세상과 같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인데

원사역의 비밀’, 제 3장 ‘성막영성과 구원서정의 5단계’, 제 4장, ‘성막영성의 의미와 적용’, 제 5장 ‘실존의 하나님과 동행’, 제 6장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과 대안’으로 구분해 각각마다 상세한 설명을 수록했다.

저자는 서문을 통해 성막의 다섯 가지 비밀을 소개했다. 첫 번째, 성막의 비밀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형이다. 앞으로 구원 받을 백성들이 천국에서 맞이하게 될 천국 궁전의 모형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두 번째,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의 전 생애를 대표하고 있다.

세 번째, 타락한 죄인들이 죄 사람을 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구원의 순서, 즉 구원의 안내도다.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얻어지지만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어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다.

네 번째, 구원으로 가는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사상은 모두 성경에 있어 하나로 수용돼야

는 송택규 목사. 그는 구원의 진정한 교리가 성막에 숨어있다고 말한다.

이 구원의 길이 교파마다 다르고 순서가 다른 것이 문제라고 제기하는 송 목사는 “절능자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원의 도리를 주셨는데 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다르기에 혼돈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능력이 없어 사막에 넣은 것이 아니지요 사막에서 40년 생활을 하면서 사막에 우뚝 솟은 것은 성막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 성막 속에는 다섯 가지 비밀이 숨어 있었고 그 다섯 가지 비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비밀이었습니다. 이 성막을 연구해가면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막이 바로 천로역정이고 성막의 영성으로 통일이 되면 하나가 되리라 믿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송 목사는 칼빈의 구원의 서정을 성막과 관련해 이야기를 이어갔다.

성전의 회막 문을 열고 들어가는 단계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성전 뜰에 들어선 것은 회개가 이뤄지고 믿음이 시작되는 과정이며 번제단은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정의의 단계라고 이어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은 성령을 만나 세례를 받고 영적으로 부활하는 중생을 뜻하며 마지막 성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는 궁극적 단계로 천국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성막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구원이 시

성막에 들어섰다면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완성해야 하는데 성막에 들어와서 성전 뜰만 밟고 다니다 끝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뤄지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이 해야 할 역할과 지어야 할 책임도 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한다고 해서 구원의 과정이 완성되는 게 아니다. 임의로만 믿는다고 하면 구원이 끝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타락하고 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 것이 결코 행실이 아예 필요 없다고 한 것은 아니다. 믿음은 곧 행위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성막에 대한 설명들을 열거하며 “현세의 혼돈은 각 교파마다 구원을 설명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예정론을 강조하는 칼빈주의를 따르고 감리교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는 알미니안 사상을 따르지만 이 둘은 모두 성경에 있는 것으로 대립될 사상이 아니라 하나로 수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원칙이 무너지고 인본주의가 판치며 기독교가 율리와 도덕을 상실한 채 세속적인 종교로 변질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야기를 이어가던 송 목사는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인들이라면 성막영성, 구원의 5단계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자신의 저서 ‘성막영성’을 내 놓았다.

‘성막영성’(도서출판 진흥)은 제 1장 ‘살아있는 신앙’, 제 2장 ‘성막을 통한 구

는 공의로운 분으로 아무리 작은 죄악이라도 용납하지 않는다.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분량에 도달한 성도들에게 은혜주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다섯째, 성막 안에 예배의 순서와 의미가 담겨있다 예배는 형식적인 종교행위가 아니라 실존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는 실제적이고 엄숙한 희생예식이라고 수록했다.

끝으로 송 목사는 이 책이 본인이 연구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쓴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님의 작품이라고 강조하며 “이 성막의 비밀, 곧 구원서정의 5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실현되기 원한다”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송 목사는 평양신학교, 백석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분향제일교회를 개척하여 사역하다 미국으로 이민, 트리니티대 목회학 박사과 유인대 철학박사를 취득하고 본 대학 부총장, 로드랜드대 신학대학장으로 역임했으며 현재 세계 크리스천 영성원대표로 일하고 있다.

한편 송택규목사의 출판감사예배 및 "건강한 교회 성숙을 위한 성막영성 공개 세미나"가 10월 20일(월) 오후 2시 로드랜드대학교(255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에서 개최된다. 자세한 것은 (213)663-8640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5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 2015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4년 10월 20일
광고 접수마감 2014년 10월 20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유료광고안내	둘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350.00
	전면 1/8	7.7cm × 11.7cm	
		15.5 × 2.8cm	\$250.00
		7.7cm × 5.8cm	
	둘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 7.5cm	\$200.00

무료리스팅신청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십시오.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